소년단

1958. 3

위임을 잘 실천한다

김 영지 동무는 신의주 녀자 고급 중학교 대에서 동무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인민 학교 때부터 최우등생이고 또 소년단의 위임을 꼭꼭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위원회로부터 도서실을 운영할 위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우선 1,200 여권의 도서를 정리하면서 책 내용을 알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책을 빌리려 온 동무들에게 그 책의 내용을 간단히 알려 주기도 하며 새로운 책들에 대하여 각 분단에 알려 줍니다. 특히 이 도서실에 없는 책들을 동무들이 요구할 때면 각 분단 도서실에 다니면서 구하여 줍니다. 홍 창애 동무가 《조선 사화집》을 요구했을 때 그는 4분단 동무들로부터 빌려다 주었습니다.

할 일을 찾아한다

홍 영찬 동무는 남포 초등 학원 대 벽보 주필로서 자기가 맡은 일을 잘 할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 모든 일을 자기 손으로 하는 훌륭한 모범을 보이고 있다.

그는 단추를 단다든가 양말을 깁는 일로부터 자기 침실에 휴지통을 만들어 놓는 일까지 자기 손으로 한다. 그는 이런 일에까지 부모의 손을 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영찬 동무는 자기에게 필요한 일뿐만 아니라 하급반 어린 동생들의 침실 문도 고쳐 주고 연필 깎는 칼도 잘 갈아 주며 팽이, 자동차 등 장난'감들도 잘 만들어 준다.

이렇게 자기 할 일을 찾아서 하는 영찬 동무의 주위는 언제나 정돈되여 있고 그의 옷과 몸도 깨끗하며 단정하다.

앞표지—《조합에선 봄맞이가 한창이지》……백 대진 그림
뒤표지—전선 원호(조국 해방 전쟁 시기)

미군이 남조선에서 물러가야만 조국은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다

‖평화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 성명 발표‖

벌써 우리 조국이 해방된지 12년이 지났다. 미제와 리 승만 도배가 일으킨 전쟁의 불을 끈지도 4년이 넘었다.

그러나 조선은 아직 통일되지 못하였으며 우리 민족은 남북으로 갈라져 사는 불행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강남 갔던 제비야, 헐벗고 굶주리는 남반부 동무, 우리 동무 보고 왔느냐》는 등으로 갈라져 사는 안타까운 마음을 적고 있다. 또 바람과 강물과 바다'물에 남반부 소식을 묻기도 한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이보다 가슴 아프고 불행한 일이 어디 또 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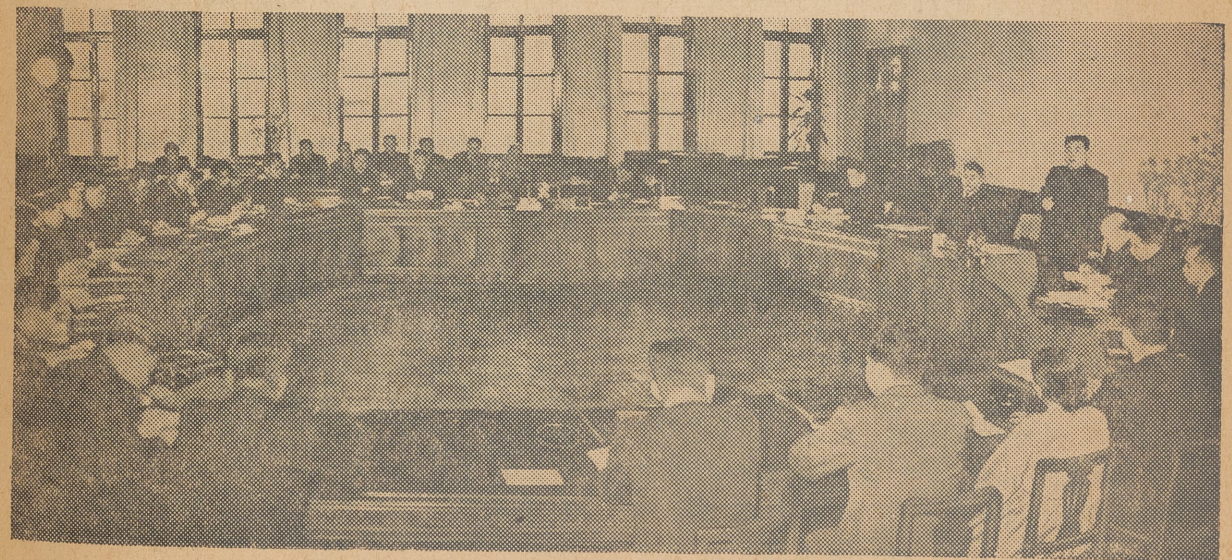
몇 만리 밖에 있는 외국의 벗들과는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도 한 조국 땅 우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오빠와 누이들이 편지조차 주고 받을 수 없다니…

경치를 세계에 자랑하는 금강산과 백두산 탐험을 같이 떠나며, 한 자리에 모여 체육 대회를 가지며, 경치 좋은 동해 바다'가 야영소에서 야영을 같이 하자는 것이 어찌 행복한 북반부 소년단원들의 마음만이랴!

통일된 조국에서 평화롭게 살기 위한 우리 인민의 념원을 미제가 가로 막고 있다.

우리의 불행은 떨어져 사는데만 그치지 않는다. 한 형제인 남반부 인민들이 미제의 강점 밑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을 잊을 수 없다. 미제 강도들은 남반부를 식민지로 만들고 있으며 인민들을 노예로 만들려 하고 있다. 미제의 강도질의 결과 남반부에서는 일자리 잃은 사람이 360만명을 넘으며 추수가 끝나면서 농량이 떨어진 농가가 70만호를 넘는다. 미군은 먹을 것을 위하여 나물 캐는 어린이를 총으로 쏘며 제살 먹은 어린 애를 도적이라고 쏘아

☆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 전원 회의 ☆

미군 나가라!

죽이며 학교 가는 학생을 총질하여 죽이고 있다.

이와 같은 불행들은 미제 침략군이 남조선을 강점한 날부터 12년 이상 계속되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다.

최근 미제와 리 승만 도배는 전쟁 나발을 더 요란히 불어 대면서 조선에서의 평화를 파괴하려고 날뛰고 있다. 이것은 조선 인민을 더 큰 불행에로 몰아 넣으려는 흉책이며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방해하려는 것이다. 때문에 미제의 남조선 강점을 더는 참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시기에 공화국 정부는 2월 5일 우리 나라에서 평화를 공고히 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하루속히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성명에서는

모든 외국 군대가 남북 조선으로부터 동시에 물러 가야 하며,

모든 외국 군대가 조선으로부터 완전히 물러 간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전조선 자유 선거를 실시하며, (이는 중립국 기구의 감시 밑에 할 수도 있다.)

남북 조선이 동등한 기초 우에서 남북간의 경제 문화 교류와 전 조선 자유 선거 문제 등을 토의하며,

남북 조선이 조속한 기간 내에 자기 군대를 각각 최소 한도로 축소시킬 것을 제의하고 있다.

이 성명은 전체 조선 인민의 념원 그대로이다. 때문에 전체 인민들은 이 성명을 지지하여 일떠서고 있으며 원쑤 미제는 남조선에서 물러 가라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위대한 쏘련,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나라들과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도 이 성명을 환영하고 있다. 2월 7일에 중국 정부는 우리 나라 정부 성명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조선에서의 평화와 조선의 평화적 통일은 아세아와 세계 평화에도 이바지되기 때문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조선에서의 평화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의 있는 제의를 거듭해 왔으며 그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 힘써 왔다.

그러나 전체 조선 인민의 념원에 맞는 이 정당한 제의들을 미제와 리 승만 도배는 계속 반대하여 왔으며 정전 협정을 파괴하는 행동을 감행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명에 똑똑히 밝힌것처럼 남반부에서 미제 침략군이 물러 가야 하는것이다. 미군이 없었다면 우리 조국은 벌써 평화적으로 통일된지 오랬을 것이다. 미군이 남조선에 남아 있을 리유는 털끝만치도 없다.

미군이 강점하고 있는 남조선에서는 《평화 통일》이라는 말만 하여도 잡아 가두고 있다. 때문에 미군이 철거한 후 남조선에서는 북반부에서와 같이 정당 사회 단체들의 자유로운 활동과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여야 한다. 그래야만 전조선 자유 선거가 보장될 수 있다.

남북 간에 서로 편지를 주고 받으며 서로 다니며, 경제 교류를 할 수 있게 되여야 한다. 문화, 예술, 체육 그리고 세계에 자랑하는 국어를 같이 발전시켜야 한다. 이것을 미제와 리 승만 도배는 계속 방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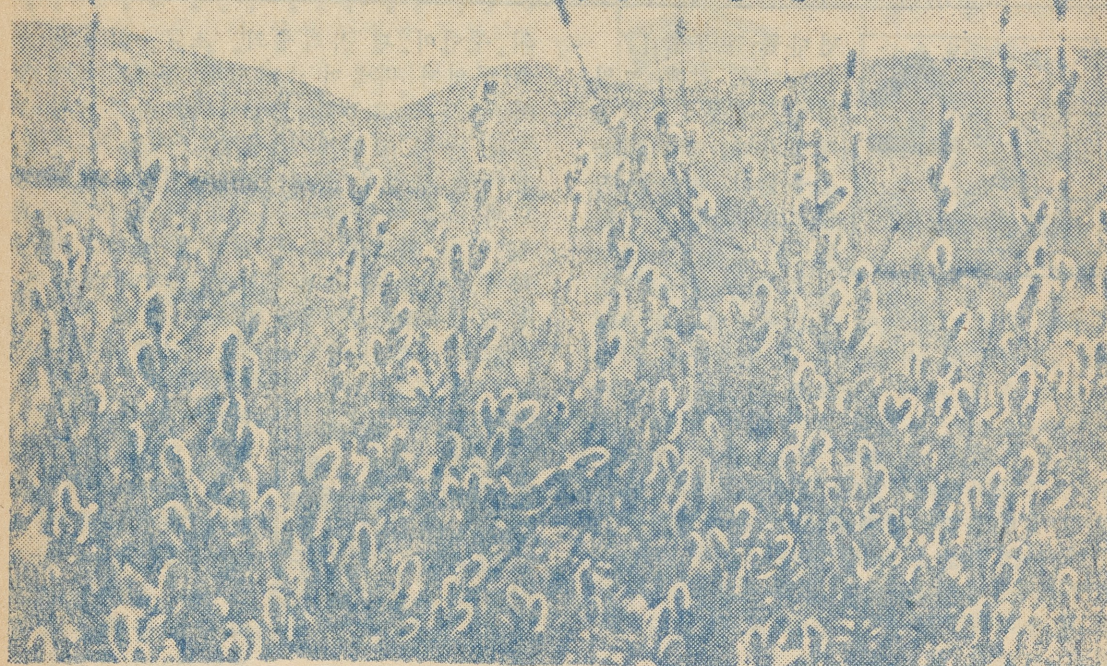
전 조선 자유 선거 문제와 함께 이 문제들은 속히 토의 해결되여야 한다.

공화국 정부는 이미 8만명의 군대를 축소하였다. 군비 축소에 관한 공화국 정부의 제의에 호응하여 남조선 당국은 군대를 축소함으로써 남북 간의 긴장 상태를 완화하며, 군사비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인민들의 불행을 덜어 주어야 한다.

이상에서 똑똑히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미제 침략 군대가** 남조선에서 물러 가야만 조국은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다.

공화국 정부 성명에 밝혀 있는 이 과업을 실천하는 것은 오늘 매개 조선 사람에게 질머지워진 민족의 가장 큰 일이다.

모든 힘을 다 합하여 평화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가로 막고 있는 미제를 남조선에서 물러 가게 해야 한다.

미제는 물러 가라!

소년단 1958년 3호 내용

사회주의 조국의 주인이 되기 위해…(2)
3·1 운동 이야기……………………(4)
한 길을 위해……………… 허 창숙(6)

—항상 배우며 준비하자—
진우 동무의 하고 싶은 자랑……박 정렬(9)
반 생활을 잘 하자……전 택선(22)
나라를 도운 일……………………(12)

앞날은 사회주의의 것이다……………(12)
◇우리 나라 려행◇ 자강도……………………(20)
꽃피는 마을의 소년단원들…최 화규(24)

문예
소년 소설 성황당…………송 창일(17)
인민 동화
체코슬로바키야 동화 게으름뱅이 또네끄의 꾀병…(38)
파란 동화 카나리야의 신발……………(39)
불가리야 동화 물'고기의 이야기…………(40)
작문
성적증을 받던 날…정 정숙(33)
밝은 날 저녁………리 혜숙(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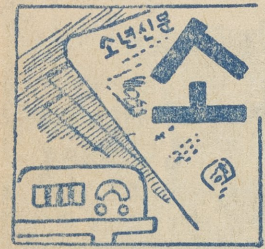
◇남조선 농촌 이야기◇
소작 땅 마저 뗀단 말인가……………(36)
일본에 있는 조선 동포들의 생활……(28)

—그림 이야기—
어린 투사들………그림 림 영환(14)
박돌의 죽음………그림 남 현주(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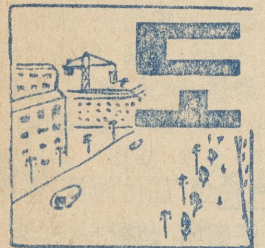
—우리들의 그림 페지—
영화……………………………………(22)
어머니의 가르침…………………………(23)
거짓말쟁이……………………………(26)
락서……………………………………(27)
다시는 지각하지 않겠다…………전 영철(33)

☆

☆ ☆

사회주의 조국의 주인이 되기 위해

년단원 동무들!

라디오 앞에 모입시다. 신문 잡지를 펼칩시다. 거기에는 동무들의 마음을 자랑으로 가득 차게 하는 새 소식——우리 조국 곳곳에서의 사회주의 건설 소식이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동무들이 사회주의 건설장들을 찾아간다면 직접 자기 눈으로 이것을 볼 수 있지요.

최신 기술로 꾸려진 큰 공장, 기업소, 우리 로동자들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수많은 현대식 새 기계들, 그 뿐인가요! 로동자 아저씨들은 직접 높은 기술 기능을 요구하는 제철소의 큰 용광로까지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국 력사에서 전에 없었던 일이랍니다.

시와 농촌에서도 사회주의가 결정적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우리 나라 농촌은 개인 경리가 아니라 사회주의 협동화의 농촌으로 바뀌여졌으며 개인 상공업자들도 사회주의 근로자로 개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옳은 지도하에 사회주의가 모든 부문에서 승리하고 우리 나라는 발전된 공업—농업 국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인민들의 생활은 날로 향상되고 흥겨워졌습니다. 아담하고 훌륭한 새 주택들과 거리, 새 교실과 구락부는 더욱 늘어 가지요. 바로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사람에 대한 사람의 착취를 영원히 없애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로동하며 살 수 있는 사회주의 사회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로동당의 령도 밑에 로동자, 농민이 나라의 주인이 된 사회주의 조국—이것은 우리 인민과 더불어 소년단원 동무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사회주의 조국은 우리 인민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 유족한 생활을 갖다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년단원들이 마음껏 배우고 훌륭한 일'군이 되도록 모든 배려를 돌리고 있습니다. 일제 통치 시대에는 우리의 로동자, 농민, 부모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학교 문 앞도 가 보기 어려웠지요. 남조선은 지금도 마찬가집니다.

러나 북반부에서는 초등 의무 교육제가 실시되여 220여만의 학생 소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멀지 않아 초중 의무 교육제가 실시된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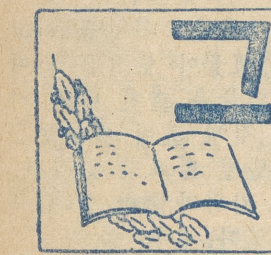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 조국을 가장 열렬히 사랑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보다 급속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자기 맡은 바 일터에서 영웅적으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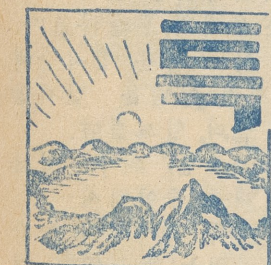
사회주의 조국의 앞날의 주인인 소년단원 동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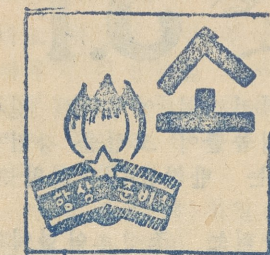
사회주의 조국의 주인—이 얼마나 영예롭고 희망찬 이름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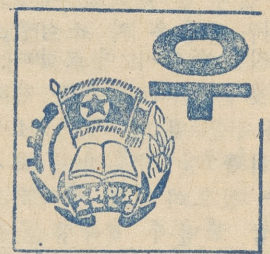
우리 소년단원 동무들은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나는 일등가는 공장 선반공으로, 지질 탐사가로, 벼 농사의 명수로, 교육가로 되리라》고. 모두 훌륭한 일입니다.

회주의—공산주의를 건설하는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일이 다 좋고 흥겹지요. 그러나 주인이 되려면 그 준비를 튼튼히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가요? 제일 주요한 것은 동무들이 소년단에 입단할 때 다진 소년단원의 엄숙한 맹세를 꼭 실천하는 일입니다. 우선 전체 소년단원들은 사회주의 진영의 대가정 속에서 형제 나라 인민들과 국제주의적 친선 단결을 강화하면서 번영하고 있는 로동자 농민의 나라—사회주의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힘을 다 바치는 억센 애국자로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러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주의 사회가 얼마나 우월한가를 똑똑히 알며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지주—자본가 제도를 몹시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동무들은 우리 나라 로동자, 농민, 부모들이 일본놈의 통치 시대에 얼마나 헐벗고 학대를 받았는가를 항상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 로동자, 농민들은 오늘과 같은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저 착취 계급을 반대하여 힘차게 싸웠으며 우리의 혁명 투사들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총칼에도 굴복하지 않고 피를 흘려 원쑤와 싸웠습니다. 동무들은 이것을 가슴 깊이 새겨두어야 하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어떠한 곤난이라도 능히 뚫고 나갈 줄 아는 품성을 소유하기에 항상 힘써야 합니다.

히 김 일성 원수님을 선두로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오랜 항일 무장 투쟁의 빛나는 애국 전통을 본 받기에 모든 힘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우리 인민이 피와 땀으로 쟁취한 우리의 정권, 공장, 농업 협동 조합, 학교를 어찌 인민의 원쑤에게 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년단원들은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우리 공장과 농촌을 삼키려고 덤벼든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을 무찔러 이긴 인민들의 영웅적 투쟁, 전쟁 시기 어린 소년단원들의 용감한 투쟁 모범을 본받아 원쑤들에게 절대로 굴하지 않는 사상으로 무장하여야 합니다.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은 계속 공화국 북반부의 사회주의 건설을 파괴하려고 날뛰고 있습니다. 소년단원들은 반혁명 분자들을 숙청하는 투쟁에서 부모, 형님들의 일을 적극 도와야 합니다.

사회주의 조국의 앞날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과학 지식과 기술을 훌륭히 소유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잘 모르고서야 어찌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소년 단원들은 우리 선조들이 남겨 놓은 모든 진보적인 과학 문화 유산을 발전시키며 선진 과학 기술을 습득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리는 말로만 조국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을 애국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실지 자기의 모든 지혜와 힘과 몸을 사회주의 조국을 위해 바치는 사람을 진정한 애국자라고 부릅니다.

소년단원들은 바로 이렇게 준비되기 위하여 훌륭한 민청원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민청원—이는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며 로동당의 가르침을 어김 없이 수행하는 청년들의 가장 고상한 칭호입니다. 동무들은 소년단 조직 생활에 열성껏 참가하며 사회의 유익한 로동과 체육, 문화 활동의 모든 일을 통하여 자기의 신심을 단련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을 승리에로 령도하는 조선 로동당에 충실하고 김 일성 수상을 수반으로 하는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 주위에 굳게 뭉쳐 그의 가르침을 끝까지 실천할 투사로 되기 위해 훌륭히 준비합시다.

3.1 운동 이야기

10월 혁명의 직접적인 영향하에 일어난 3•1 운동은 왜놈들이 조선을 강점한 후 처음으로 되는 반일 민족 해방 운동이다.

10월 혁명의 승리는 조선 인민에게 해방과 독립의 길을 밝혀 주었으며 일제를 반대하는 조선 인민의 투쟁을 고무 추동하였다.

그리하여 조선 인민의 투쟁 기세는 날로 높아 가고 있었다.

특히 로동자들의 투쟁은 급속히 자라나 벌써 1918년에는 파업에 참가한 로동자의 수가 6,000명에 달하였다. 이것은 1912~1917년까지의 파업자 수 보다 더 많은 것이다. 로동자, 농민들의 투쟁이 급속히 앙양될 때에 이 전의 조선 왕이였던 고종을 독약 먹여 죽였다는 소식과 곧 뒤를 이어 일본 동경에서 독립 선언서를 발표하고 시위를 한 조선 학생들을 탄압했다는 소식이 전국에 전하여졌다.

그러지 않아도 잔뜩 높아 갔던 왜놈들에 대한 인민들의 격분은 이 소식들로 하여 방금 터질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와 같은 때 옛날 관리 노릇을 했거나 지주들과 관계를 맺고 있던 소위 《33인》은 이 기회를 잘 리용하면 혹시 《독립》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큰 벼슬 자리를 꿈 꾸면서 《독립을 주십시요》하고 공손히 청원해 볼 것을 작정했다.

이들은 특히 미국에 크게 기대를 걸고 이렇게 청원만 하면 미국이 《독립》을 가져다 주리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래서 1919년 1월부터 비밀히 독립 운동을 준비했으며 서울 학생 대표들과도 련락을 가지고 3월 1일 탑동 공원에서 독립 선언서를 랑독하고 기세를 올리자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들은 인민들이 투쟁에로 궐기하면 그 책임이 돌아 올가봐 두려워서 3월 1일 날 탑동 공원으로는 가지 않고 태화관이라는 료리 집에 모여서 독립 만세를 부른 다음 왜놈들이 알기도 전에 전화로 왜놈 경찰에 자수하고 말았다.

탑동 공원에서는 수 많은 군중들이 《33인》을 기다렸으나 시간이 되여도 오지 않으므로 학생 대표가 연단에 뛰여올라 독립 선언서를 랑독하였다.

군중들은 《조선 독립 만세!》를 높이 높이 부르고는 두 패로 나뉘여 《일본 군대와 일본인은 물러가라!》, 《조선 독립 정부를 세우자!》, 《조선은 조선 사람의 것! 자유와 평등 만세》등 구호를 부르며 시위를 했다.

서울시 내 로동자들은 파업을 하고 거리 곳곳에서는 학생들이 연설을 하며 삐라를 뿌리고 인민들은 떨쳐 나와 시위에 호응하였다. 겁에 질린 왜놈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벌벌 떨고만 있었다.

일본 총독놈은 시위자들을 총 칼로 탄압하라고 명령하였다.

시위자들과 일본 경찰 헌병들과의 사이에는 일대 투쟁이 벌어졌다. 그 속에서도 시위는 계속 뒤를 이어 진행되였다.

이 날 시위에는 30만명이 참가하였다.

왜놈들과의 투쟁에서 수 많은 시위자들이 학살되였으며 부상 당하고 많은 애국자들이 놈들에게 잡혀갔다.

서울 장안은 인민들의 뜨거운 피로 물들었다. 인민들은 오직 투쟁을 통해서만이 독립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3월 5일 10여만의 서울 시민들은 또다시 시위를 했다. 시위자들은 밀려 드는 일본 경찰, 군대들과 용감히 투쟁하였다.

서울에서 일어난 이 소식은 삽시간에 전국에 퍼져 전체 조선 인민을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불러 일으켰다.

3월 1일에는 평양, 선천, 의주, 원산에서, 3월 2일에는 해주 수안에서…

이리하여 드디어 전국 각지에서 독립 시위가 일어났으며 시위는 폭동에로 넘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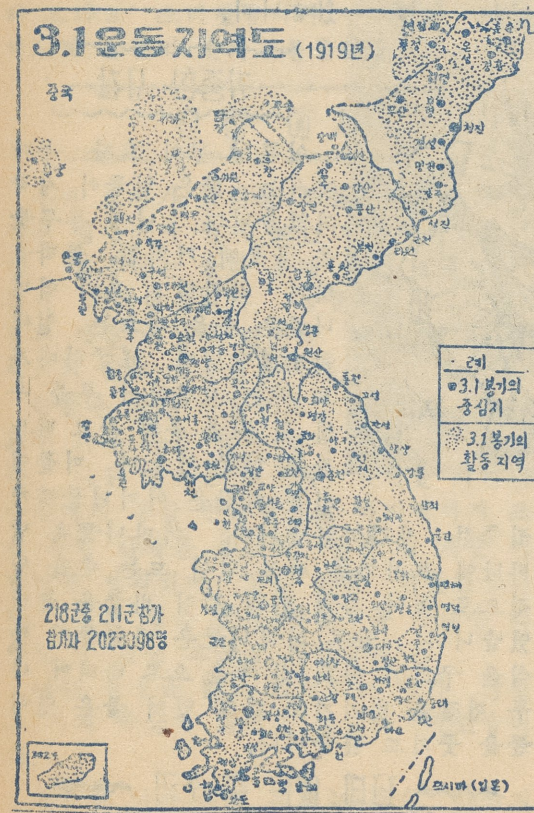
인민들은 식칼, 도끼, 쇠시랑, 곡괭이, 호미, 낫, 몽둥이를 들고 주재소, 헌병대, 군청, 면 사무소를 습격하고 일본인 관리, 경관, 헌병들을 처단하였다. 로동자들은 파업을 단행하고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가했다. 특히 송림 제철소(현재의 황해 제철소) 로동자들을 비롯하여 탄광, 광산, 철도 부문 로동자들은 가장 힘차게 투쟁하였다.

전국 각지에서 농민들은 일본 토지 회사와 지주를 반대하여 용감히 투쟁하였다. 리원군 농민들은 군청을 습격했으며 맹산과 수안군 농민들은 헌병대를 습격하고 놈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로동자, 농민들의 용감한 투쟁은 학생들을 더욱 궐기시켰다. 학생들은 동맹 휴학을 단행하고 시위와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3개월 이상이나 전국을 휩쓴 3•1 운동에는 200만명 이상되는 인민들이 참가했으며 전국의 218개 군 중 211개 군에서 용감한 투쟁이 진행되였었다.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조선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외국 땅에서도 운동이 진행되였다.

일제는 처음부터 투쟁에 일어선 조선 인민들에게 야만적인 탄압을 계속하였다. 놈들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학살했으며 부락에 불을 질렀다. 애국적 인민들을 십자가에 비끌어 매고 일본도와 작두로 목을 잘랐으며 불에 지져 죽이고 산 채로 묻어 죽이고 갖은 만행을 다 했다.

3.1운동지역도 (1919년)

중국

례
3.1 봉기의 중심지
3.1 봉기의 활동 지역

218군중 211군 참가
참가자 2023098명

이와 같은 때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은 일제를 도와 나섰으며 리 승만은 벌써 그 때 미제의 앞잡이로서 조선 인민의 의사와는 반대로 조선을 미제의 위임 통치 하에 두자고 떠들어 댔다.

《독립》을 가져다 주리라고 《33인》이 하늘같이 믿던 미제는 조선 문제는 내정 문제이니 우리는 모른다고 하면서 조선에 대한 일제의 야수적 통치를 지지해 나섰던 것이다.

왜놈들이 줄여서 발표한 수'자에 의하더라도 놈들의 학살과 탄압으로 하여 3•1 운동에서 사망자 8천여명, 부상자 1만 6천여명, 잡혀 간 자 5만3천여명이나 났으며 불타 버린 집은 760여호에 달했다.

3•1 운동은 당시 아직 우리 나라가 락후했으므로 로동 계급의 지도 없이, 특히 오늘 우리 로동당과 같은 강력한 당의 지도 없이 자연 발생적으로 진행되였으며 적극적인 무장 투쟁에로 넘어가지 못했고 외국 근로자들, 특히 쏘련과 중국 근로자들과의 련계가 없는데서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3•1 운동은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 후 처음 일어난 반일 민족 해방 운동으로서 독립을 위한 조선 인민의 굳센 투지를 세계에 시위했으며 일제로 하여금 무단 통치에서 《문화 정치》에로 넘어가지 아니할 수 없게 했다. 그리고 지주와 악질 자본가들은 일제의 개로서 인민의 원쑤이며 미제는 일제와 꼭같은 략탈자라는 것을 인민들은 똑똑히 깨달았다. 그리고 오직 조선 인민의 진정한 벗은 쏘련과 중국 인민들이며 세계의 압박 받는 인민들이라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되였다.

비록 실패는 했지만 조선 인민은 3•1 운동을 통하여 이렇게 많은 것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3•1 운동이 있은 때로부터 조선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은 로동 계급의 령도하에 새로운 길에 들어 서게 되였다.

한 길을 위해

—김 일성 원수 항일 유격대 내에서의 어머니들의 투쟁 이야기 중에서—

◇ 허 창숙 ◇

투쟁의 길로

내가 유격대에 입대하여 몇년이 지난 1938 년도에는 수많은 어머니들이 유격대에서 활동하게 되였습니다.

사랑하는 조국 땅에서 왜놈들의 착취와 학대에 못 이겨 수많은 조선 사람들은 중국 동북 땅을 찾아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북 땅에도 왜놈들이 발붙이고 있었으니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살 길은 투쟁의 길이였습니다. 김 일성 원수의 항일 유격대를 찾아 가 조국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길이 자기들의 행복을 찾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유격대로 찾아 오는 인민들이 날로 늘어 갔습니다. 그 속에는 어린애 업은 어머니들과 어린 녀성들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들은 비록 약한 녀성의 몸이나 왜놈들을 반대하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다 할 각오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느릅나무 껍질

어느 날 우리 부대는 원쑤들을 추격하여 대 전투를 진행해 오던 끝에 어둠이 깃드는 저녁에 중국 봄아정자 근방에 머물게 되였습니다. 오래 계속되는 전투로 인하여 식량이 떨어져 며칠을 굶은 대원들은 휴식하게 되자 긴장이 풀리여 쓰러졌습니다. 어머니들은 굶어 오면서도 비상용으로 깊이 간직해 온 느릅나무 껍질을 대원들에게 나누어 주어 다시 용기를 내게 했습니다.

☆☆ 눈 속에서 지내는 밤 ☆☆

밤이 깊어지자 하늬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그런데 우등'불을 피우고 몸을 녹이자니 깊은 산 속도 아니고 놈들에게 발견될 념려가 있어 그렇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떤 동무들은 뛰여 다니며 추위를 이겨냈고 혹은 서로 부둥켜 안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 등에 업혔던 어린 학봉이 만은 울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나는 생각다 못해 바람이라도 막기 위해 한 길이 되는 눈'속을 락엽이 깔린 땅바닥까지 파고 그 속에 들어 앉았습니다. 바람은 막는듯 했으나 어린애는 그냥 몸을 떨며 울음을 그칠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된 마음으로 끝없이 애처롭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싸우는 것이 어린 것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품 속에 안고 손발을 녹여 주며 밤을 새웠습니다.

귀중한 시간

이튿날 동이 트자 부대에서는 많은 일들이 시작되였습니다. 남성 동무들은 곳곳에 거처할 풀막을 치기 시작했고 우리 어머니들은 옷을 만드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행군하다가도 쉬는 시간이면 무릎 우에 일'감을 올려 놓고 바느질을 하군 했으니 머물어 있는 기간은 어머니들에게 귀중한 시간이였습니다. 어머니들은 날바닥에 보자기를 펴고 얼어 드는 손을 입김으로 녹여 가며 번개 같이 바늘을 놀리였습니다. 일부 어머니들은 대원들의 량식을 구하기 위해 산 속을 오르 내리며 나무 껍질을 벗기기도 하고 얼어 붙은 열매들을 줏기도 했습니다.

난데 없는 총 소리

이렇게 어머니들이 눈뜰새 없이 일하고 있을 때 난데 없는 총 소리가 울려 왔습니다.

우리 부대에게 큰 타격을 받은 놈들은 약이 바짝 올라 전보다 몇 배의 큰 병력을 동원하여 불의에 달려 들었습니다.

대원들은 급히 전투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어머니들도 애기를 업고 전사의 위치를 지켰으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부대 지휘부에서는 더 유리한 지대에서 적을 맞아 격멸하기 위하여 후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리하여 놈들의 포위망을 빠져 나가려 할 때 내 등에 업힌 학봉이가 울음 소리를 냈습니다. 나는 학봉이의 입을 막으며 가슴을 조였습니다.

놈들은 언제나 우리 유격대원들에게 감히 가까이 덤벼 들지 못했는데 어린애 울음 소리를 듣자 녀성 대원이라는 것을 알아 채고 나에게 막 달려 들었습니다.

원쑤들의 목적은 나를 산채로 잡아 유격대의 비밀을 알자는 것입니다. 이 때 산 우에 먼저 올랐던 류 명옥, 리 명순, 박영선 어머니들은 가슴을 부여 잡으며 빨리 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느덧 놈들의 손에 붙들렸습니다.

감 방 에 서

우리 모자가 갇히운 토산 헌병대 류치장은 심장까지 얼어 드는 랭돌방이였습니다. 학봉이는 울다 못해 중한 병에 걸려 앓기 시작했습니다. 놈들은 안고 있는 병든 애를 빼앗아 던지며 매일 밤 2시를 어기지 않고 고문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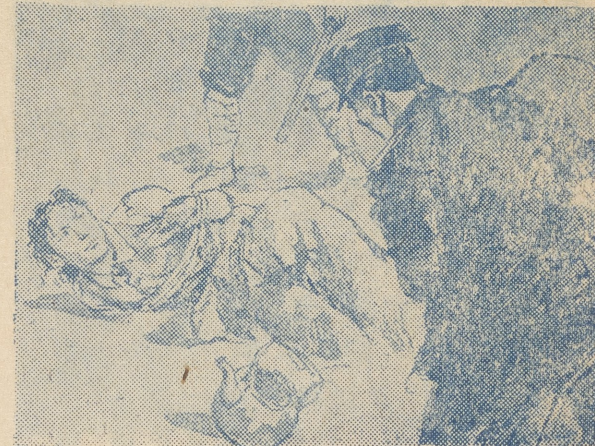
놈들은 갖은 방법으로 고문하다 못해 고추 가루 물을 코와 입에 부어 넣었습니다. 나는 어려운 고문이 닥쳐올 때마다 놈들에게 총살 당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조선 독립 만세를 용감히 웨친 김 계순 어머니를 생각하며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내가 입을 굳게 다물수록 놈들은 헤아릴 수 없는 고문을 가했습니다.

나는 정신을 잃고 기절하는 때가 많았고 거의 목숨이 끊어질 정도가 되였습니다.

놈들은 나를 죽여 버리는 것은 아깝지 않으나 죽이면 유격대의 비밀을 못 알아낼 테니 야단이라고 수근거렸습니다. 놈들은 하는 수 없이 나를 림시 내 보내여 정신을 차리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나에 대한 감시 책임을 다빈촌의 《민회》 회장인 허 광호에게 맡기고 나를 림시 내 놓았습니다.

다시 대오를 찾아

나는 감옥에서 나온 첫날부터 다시 대오를 찾아가 싸울 것만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쌔근쌔근 잠자는 학봉이의 얼굴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첫돐이 겨우 지난 어린 학봉이 앞에서 나는 오래'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바라보더니 《아기는 나한테 맡기고 어서 떠나거라》하고 눈물을 머금었습니다.

참된 행복을 위해서는 이렇게 쓰라린

작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나는 학봉이와 작별하고 강'가로 나와 물에 빠져 죽은 것처럼 소문내기 위해 강'가에 신발을 벗어 놓고 건넜습니다.

나는 낮에는 숲 속에서 자고 밤에는 걸었습니다. 깊은 산'길에 이르러서는 나무'군으로 가장하고 다니며 유격대를 찾았습니다. 나중에는 말라 붙은 머루알과 나무 껍질, 도토리를 주어 먹으며 부대를 찾았습니다.

나는 부대가 전에 주둔했던 곳에 다달으게 되였습니다. 그러나 산 속은 고요했습니다. 나는 속절없이 산간에서 죽을 것만 같아 안타까왔습니다.

(4중대장 동무는 부상당한 발이 썩게 되자 합석 조각을 얻어다 자기 손으로 짤라 버리고 한해 겨울을 산 속을 헤매며 부대

를 찾아 오지 않았던가)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며 용기를 내였습니다. 그러다가는 또 동지들을 끝없이 회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때 별안간 《손 들엇》 하고 굵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바로 빨찌산 대원이였습니다. 유격대가 자리잡은 집앞까지 다닫자 대원들은 뛰여 나오며 나를 포옹해 주며 《창숙 동무 장하오, 죽어도 이 길 밖에 없었지》 하시며 두 손을 힘껏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 어머니

내가 체포된 후 송강성 보천 동지로 이동했던 부대는 그 곳에서 놈들과 전투하여 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때 우리 대원들 중에 몇명의 부상자가 생겼습니다. 그 간호 책임을 명옥, 영선, 명순 세 어머니들이 지고 부대와 좀 떨어진 곳에 있게 되였습니다.

그런데 참패를 당한 원쑤놈들은 또 다시 우리 부대에 추격을 가해 왔습니다.

부대보다 먼저 적들과 대항하게 된 어머니들은 부대와 이동 장소를 서로 련락하지 못하고 이동하게 되였고 부대도 원쑤들을 섬멸하면서 새 공격을 위하여 근거지를 불의에 이동했습니다.

이 때 어머니들은 부상병을 부축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 방의 총알이 날아와 한 부상병에게 다시 중상을 입혔습니다. 명옥 어머니는 그 때 어린 몸이였으나 서슴없이 피흘리는 부상병을 업으려 했습니다. 부상병은 《동지들 나를 생각지 말고 어서 가십시요》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명옥 어머니는 《아닙니다. 나의 임무는 동지를 죽음에서 구하는 일입니다. 어서 갑시다》 하고 부축했습니다.

부상병은 자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어머니들에게 자기를 두고 가라고 권고하다 못해 떨리는 두 주먹을 높이 들며 《조선 독립 만세》를 웨치고 자기 손으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렇게 유격대원들은 자기 동지를 혁명을 위해 서로 아꼈던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찢어 지는듯한 가슴을 안고 눈물을 흘리며 그를 눈 속에 묻었습니다.

이리하여 두 명의 부상병을 교대로 운반하면서 부대를 찾았으나 며칠이 지나도록 부대가 간 곳은 알 수 없었습니다.

눈이 무릎 우에까지 쌓여 발을 옮겨 놓을 수도 없었고 먹을 것이라군 도토리 한 알도 눈 때문에 주어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위 밑에 들어가 불을 피워 놓고 몸을 녹이다가는 또 걸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에 지칠 대로 지친 그들 몸에서는 식은 땀이 흘러 내리고 옷은 소가죽 모양으로 얼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 걷다가는 빈혈증에 앞이 캄캄해지면서 주저 앉게 되는 때가 한두번이 아니였습니다.

그러나 소나무 껍질을 벗겨 씹고 눈을 쥐어 먹기도 하면서 오직 한길만을 생각했습니다. 부대를 찾아 가는 길, 조선 인민의 해방을 위한 길을 향해 곤난을 이겨내고 끝내 부대를 찾아 왔던 것입니다.

상 봉

이리하여 내가 부대를 찾아간 얼마 후에 나는 다시 그들과 만나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부둥켜 안고 《굴할줄 몰랐으니 다시 만났군요》 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투쟁의 새 결의를 굳게 다지고 또다시 투쟁의 길에 나섰던 것입니다.

중대장 동무는 이 광경을 보고 만족한 웃음을 지으며 《동지들의 투쟁은 후대들의 가슴에 영원히 꽃피게 될것이요》 하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이 때부터 17 년이 지난 1955 년에는 학봉이도 만났습니다.

진우 동무의 하고 싶은 자랑

◇박 정 렬◇

동무들과 헤여지면서 골목길에 들어선 리 진우 동무는 집에까지 막 달려 왔습니다.

《할머니! 어머닌 125%나 했어요!》.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소리치며 달려드는 외손자의 말에 외할머니는 어리둥절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진우 동무는 자기대로 할머니를 붙잡고 숨돌릴 새도 없이 어머니의 자랑을 늘어 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도 그럴 밖에 없는 일입니다.

지난 날 시장에서 《중청 상점》이라는 간판을 걸고 외할머니네 집에서 개인 장사를 하던 어머니가 분단 동무들의 도움을 받아 오늘은 떳떳한 로동자로 일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진우 동무는 오늘 반 동무들과 함께 어머니가 일하는 식료품 종합 공장에 견학을 간 것입니다.

구수한 빵 냄새가 코를 찌르는 제과반에 들어서자 이들은 날쌔게 일'손을 재는 진우 어머니를 보고 《야》하고 환성을 올려서 제과반 로동자들을 놀라게까지 하였습니다.

진우 동무의 어머니도 반 동무들을 알아 보고 여간 반가와 하지 않았습니다.

…내각 결정 104호가 나왔을 때 분단에서는 처음으로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길에서》라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날 분단 동무들은 저마다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있는 힘 다하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 형님, 누나들에 대하여 자랑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우 동무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랑은커녕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할 지경이였습니다. 나라의 리익보다 자기 혼자의 리익만 생각하는 개인 장사를 하고 있는 어머니는 사회주의 건설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분단 모임이 있은 다음부터 진우 동무는 어머니에게 직장에 들어 갈 것을 여러번 권했습니다. 그 때마다 어머니도 난처해서 이마'살을 찡그리며 곧잘 이렇게 말하는 것이였습니다.

《그게 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탓이다. 난들 모를 리 있니 너편네가 로동을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 해 오던 장사니 할

수 없지 않느냐?》. 아무리 이야기해도 어머니가 쉬이 장사를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진우 동무는 안타깝던 남어지 반 동무들에게 의논 삼아 이야기했습니다.

반에서는 곧 이 일을 가지고 모임에서 의논하고 진우 동무를 도와 그의 어머니를 깨우쳐 주기로 했습니다. 그 후부터 반 동무들은 자주 진우 동무네 집에 놀러 가기도 하고 거기에서 모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때때로 반장인 안 희삼 동무는 진우의 어머니가 들을 수 있도록 반 동무들에게 신문이나 잡지에서 녀성 로력 영웅들과 혁신자들에 대한 기사를 골라 내여 읽어도 주며 재미 있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차츰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귀울이게 된 진우 동무의 어머니는 《뭘? 혼자서 직포기 32대를 맡아서 일한다고!》.

《녀자가 자동차를 다 몰다니 정말 장한 일이구나》하며 연신 감탄하는 것이였습니다.

반 동무들은 계속해서 오늘 우리 나라에서 녀성 근로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사회적 배려에 대한 이야기도 해 드렸습니다.

이리하여 진우 동무의 어머니는 로동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버리고 서슴없이 공장 로동자로 들어 가게 된 것입니다.

《저 애들이 글쎄 나를 이깨워 주지 않았겠소. 직장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말이예요》.

진우 동무의 어머니는 옆에서 빵을 구워내는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속삭이며 쉬지 않고 일'손을 재촉하였습니다.

공장 안을 뺑 돌아서 나오던 반 동무들은 게시판에서 다시 발을 멈췄습니다.

빨간 줄이 뻗은 구라흐에는《길명배》라는 진우 동무의 어머니 이름도 있었습니다.

《야! 125%》 진우 동무는 물론 반 동무들도 대단히 만족했습니다.

공장을 나선 진우 동무는 더 없는 기쁨을 느끼며 반 동무들에게 어머니의 자랑을 털어 놓았습니다.

그는 어제 저녁에 어머니가 말하던 대로 자기네도 쉬이 공장 사택을 받게 된다는 것과 어머니의 임금이 10%나 올라 갔으니 더 살기 좋게 되였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반 동무들도 저마다 자기 아버지가 상금을 타온 일이며 표창 받은 일들을 자랑하기에 신이 나 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마을에까지 온 이들은 서로 헤여졌습니다. 골목길에 들어서자 진우 동무는 나들이 갔다 오신 외할머니에게도 이처럼 자랑하고 싶어 막 뛰여 온 것입니다.

《그것 참 벌써 직장에 들어 갔어야 했을걸 괜히 장산지 뭔지 하느라구 그랬구나》.

진우 동무의 이야기에 외할머니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때에 밖에서 누가 소리쳐서 얼른 문을 열고 내다 보니 우마차 사업소에 다니는 로동자 아저씨가 공장에서 배정한 무연탄을 실어 왔습니다.

진우 동무는 너무도 좋아 어쩔 줄 몰랐습니다.

진우 동무의 얼굴만 쳐다 보던 외할머니도

《참 좋은 세상이다. 녀자 혼자서도 사내들처럼 걱정없이 집을 꾸려 나가게 마련이니…》하고 몹시 만족해 하셨습니다.

원산시 제 8중 학교 대
제 3분단에서

나라를 도운 일

박 동이네 집은 남송동 《농민 시장》으로 들어 가는 골목에 있었습니다. 언제나 아버지, 어머니의 일을 잘 도와서 동네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그는 이 날도 담벽을 수리하려고 빈터에서 흙을 파고 있었습니다. 어둡기 전에 빨리 일을 끝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는 재빨리 삽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삽을 푹푹 떠서 삼태기에 담다가 그만 흠칫했습니다.

《이게 뭐야?》.

삽질을 하던 곳에서 시쿰시쿰한 냄새가 풍기는 숫한 밥찌꺼기가 나타났습니다.

《옳아! 술을 만들 밥찌꺼기구나, 누가 밀주를 했을가?》.

그는 속으로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순간 그에게는 그 옆집이 의심스럽게 생각되였습니다. 지난 날에도 그랬지만 어제도 그의 집 앞에서 공을 차며 노는데 뚱뚱한 녀인이 나와서 놀지 못하게 하던 일이며 낮모를 사람들이 술병을 차고 드나 들던 생각이 떠 올랐기 때문이였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 집에서 뚱뚱한 아주머니가 무거워 보이는 보자기를 가지고 시장으로 나가는 것이였습니다.

더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그는 중앙 분주소로 달려 가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후 교장 선생 앞으로 분주소에서 전화가 왔는데 나라의 법을 위반한 사람을 적발해 준 박 동이에게 칭찬하는 말이 전해졌답니다.

—평북 신의주 4중 1학년 1반에서—

앞날은 사회주의의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만 해도 이 세상에는 돈 많은 지주, 자본가놈들이 척 도사리고 앉아 온 세계를 제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씨야에서 위대한 10월 혁명이 승리하고 지구상에 처음으로 로동자, 농민의 나라—쏘련이 나온 때로부터 4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자본주의는 이제 더는 이 세상을 좌지우지 하지 못하게 되였습니다.

◇중국 안산 제강소◇

오늘의 세상은 **벌써 자본주의가 멸망해 가는 세상이요.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를 이기고 앞서 나가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제 2차 세계 대전 전에만 해도 아직 사회주의 나라는 쏘련 한 나라였지만 오늘에 와서는 우리 나라까지 해서 13개 나라로 장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은 **령토상으로도 세계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10억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미국이나 영국, 불란서 기타 자본주의 나라들의 인구는 통털어서 4억 남짓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기선도 만들고 있다◇

사회주의는 령토와 인구상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와 과학 기술에서도 자본주의에 비할 바 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기간 자본주의 나라들인 미국이나 독일, 영국 같은 나라들에서 공업 생산이 30배로 발전하자면 80년에서부터 150년이 걸렸다면 **사회주의 나라인 쏘련은 불과 40년 동안에 공업 생산을 혁명전 1913년에 비해 무려 33배로 발전시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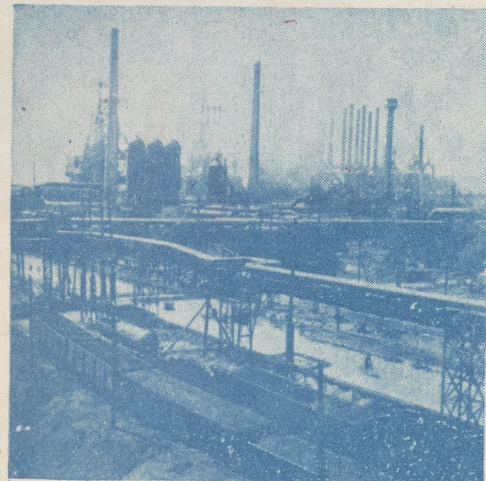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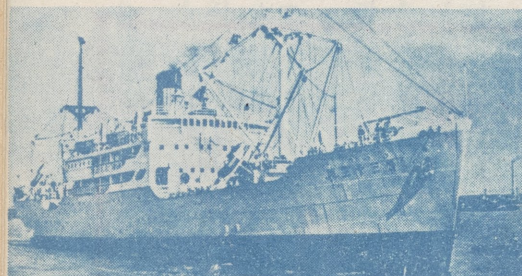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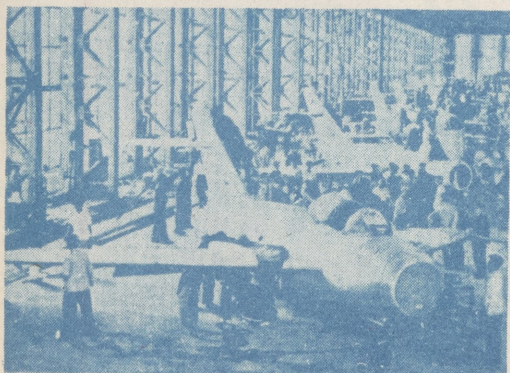
그러다 같은 기간에 미국의 공업 생산은 2배 남짓 밖에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과학 기술에서도 사회주의 나라 쏘련은 세계의 첫 자리를 차지하게 되였습니다.

◇중국에서는 비행기도 만든다◇

세상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지난 해에 위대한 쏘련은 세상에서 처음으로 대륙간 탄도 로케트와 두 개의 인공 위성을 쏘아 올려 온 세상 사람들을 경탄케 했습니다.

쏘련은 올해에도 인공 위성의 발사와 함께 100 개 이상의 각종 로케트들을 하늘에 쏘아 올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쏘련 과학자들의 힘으로 달 나라에는 물론이고 금성, 화성으로까지 우주 려행을 떠날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날 제멋대로 원자 무기를 내 휘두르면서 세계에서 가장 《강대》하다고 뽐내던 미국은 어떻게 되였습니까!

◇석탄으로부터 향기로운 코크를 만들어 내는 세계 최초의 공장 ◇(민주 독일)

쏘련의 두 개의 인공 지구 위성 발사에 겁을 집어먹고 불야불야 《뱅가드》라는 주먹만한 인공 위성을 쏘아 올린다고 떠들어 댔으나 그것도 쏘아 올린지 3초가 못되여 팡! 하고 도로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미국의 위신은 《뱅가드》와 함께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사회주의 진영은 쏘련 뿐만 아니라 강대한 6억 인민의 나라 중국을 비롯한 모든 사회주의 나라들에서도 공업이 눈부시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업 생산은 인민 정권하에서 벌써 3배로 발전하였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야는 공업 생산에서 벌써 발전된 자본주의 나라인 불란서를 앞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사회주의 진영은 눈부시게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그 어떠한 힘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강대한 힘으로 장성 강화되였습니다.

◇1956년 5월 1일에 건축된 용광로◇(루마니야)

사회주의 진영의 장성 강화는 제국주의자들의 압박과 착취 밑에서 시달리던 식민지 나라 인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최근 12년 동안에만도 세계에서는 아세아에서 우리 조선, 중국, 월남을 빼 놓고라도 인도, 인도네시야, 비루마, 애급, 씨리야 등 **7억의 인민들이 식민지 명에를 벗어 던지고 당당한 독립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완전한 독립을 찾지 못한 나라들에서도 계속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해서 자기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용감하게 일어나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의 수억만 인민들은 모두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을 반대하여 세계 평화를 위한 한 길에서 쏘련을 선두로 한 우리 사회주의 진영 나라 인민들과 굳게 손 잡고 싸워 나아가고 있습니다.

◇두 체계의 경쟁◇

낫과 마치가 그려 있는 로케트(쏘련)와 미국 국기를 단 폐병 환자 운반차…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두 체계간에 경쟁을 보여 주고 있다.

이 그림은 영국 화가가 그린 그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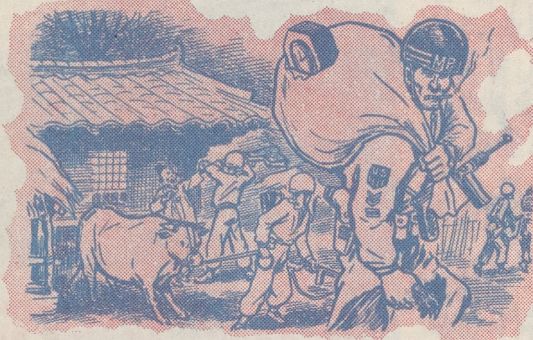
력사는 제국주의자들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향해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멸망할 날은 점점 가까와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날은 반드시 사회주의의 것입니다.

어린 투사들

◇ 림 영환 그림 ◇

——함남 신흥군(영고면)소년 투쟁기——

(1) 우리 인민 군대의 일시적 후퇴 시기인 1950년 10월——이리 떼 같은 원쑤놈들이 기여든 한 창경 동무네 고향 마을은 몹시 소란스러웠습니다. 원쑤놈들은 첫날부터 지난 날 토지를 분여 받아 잘 살게 되였으며 나라 일에 헌신해 오던 마을 사람들의 집집을 찾아 다니면서 소와 돼지 닭 등을 빼앗아 가는 등 별별 짓을 다 했습니다.

(2) 히수네 집으로 놀러 가던 한 창경 동무는 자기와 가장 친하던 김 국빈 동무가 그의 누나와 형님이 《빨갱이》라고 놈들에게 끌려 학교 마당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놈들은 사랑하는 학교를 류치장으로 만들고 마을의 간부들과 로동당원들을 끌어다가 고문하는 것이였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치가 떨려 창경 동무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얼마 동안 학교만 쳐다 보는 것이였습니다.

(3) 창경 동무에게는 즐겁던 지난 날의 가지가지의 일들이 떠올랐고 몹시 그리웠습니다.

여름마다 즐겁던 부전령에서의 야영 생활이며 써클 경연 대회 그리고 꼭 전기 기사가 되리라던 희망——공화국의 품을 떠나서는 이 모든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니 원쑤에 대한 증오심은 더욱 불타 올랐습니다.

(4) 《히수! 우린 이렇게 놀고만 있을 수 없지 않아 우리의 행복을 짓밟고 있는 놈들을 눈 앞에 두고 말이야》 눈물이 글썽해지며 창경 동무가 하는 이 말은 히수 동무의 가슴을 몹시 울렸습니다.

《정말 그래 우린 〈청년 근위대〉를 또 한번 읽어 볼 필요가 있어》 하고 히수 동무도 창경 동무의 손을 힘 있게 잡아 흔들었습니다.

(5) 이튿날 창경 동무네 뒤'방에는 지난 날 소년단 열성자들이였으며 창경이와 가장 친한 김 히수, 한 호경, 류 영욱 등 네 동무가 무거운 침묵 가운데 모여 앉았습니다.

원쑤를 미워하는 불붙는 마음은 일시에 합치되여 불씨를 이루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원쑤놈들과 용감히 싸울 굳은 결의 밑에 《소년 공작대》를 조직하였습니다.

(6) 11월 초부터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서 《소년 공작대》의 활동은 시작되였습니다.

처음에 이들은 놈들이 의심을 사지 않도록 비위를 맞춰 주면서 담배 심부름도 하며 놈들의 비밀을 정탐해 내기에 힘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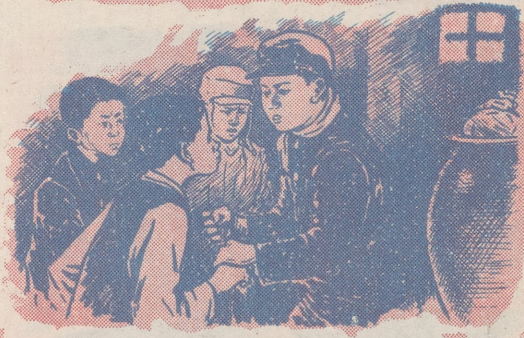
(7) 11월 17일 아침 마을의 거리거리와 담벽에는 원쑤놈들의 심장을 서늘케 하는 삐라들이 나 붙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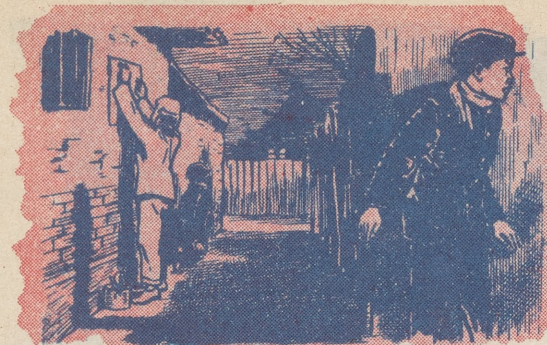
《국군》놈들과 《치안대》놈들은 눈이 휘둥굴해서 온 마을을 발끈 뒤졌고 마을 사람들은 간밤에 산에서 빨찌산들이 왔다 간 것이라고 수근거렸습니다.

이것이 《소년 공작대》원들이 써 붙인 삐라인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8) 이튿날 아침에 창경 동무는 《치안대》에서 심부름을 하는 집 안집 사람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제'밤에 빨찌산 몇 사람이 놈들의 통신망을 끊으려 마을에 내려 왔다가 체포되였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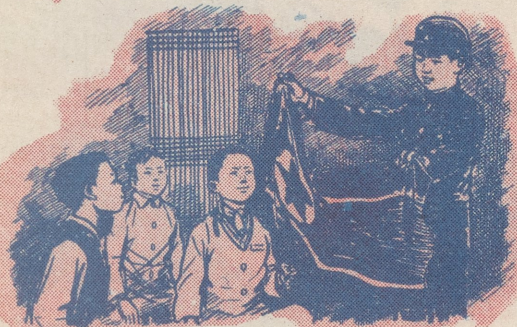
창경 동무는 이 일을 곧 《소년 공작대》원들에게 알리고 빨찌산 아저씨들이 이룩하려다 못한 일을 우리가 해 놓아야겠다는 의견을 내 놓았습니다.

(9) 허리에 뻰찌를 찬 《소년 공작대》원들은 신흥읍에 나무를 팔러 떠나는 것 처럼 차리고 함흥으로 가는 길을 떠났습니다.

한 사람씩 떨어져서 나무를 지고 신작로를 걷는 어린 그들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들은 쉬는 짬마다 길 량옆에 거미줄 처럼 늘인 미군놈들의 전화 줄을 깜쪽 같이 끊어 놓군 하였습니다.

(10) 어느새 마을에는 장진호반 전투에서 미군이 무리 죽음을 당했다는 이야기며 인민 군대와 지원군 아저씨들이 진격해 온다는 소문이 자자하게 떠 돌았습니다.

이럴수록 놈들의 발악과 만행은 더 해 갔습니다. 그렇다고 《소년 공작대》원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하여 이들은 거리거리에 삐라를 뿌려서 놈들에게 혼란을 주었습니다.

(11) 12월 4일 저녁부터 함박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날 따라 맥 없는 총 소리와 자동차 소리 개 짖는 소리로 하여 마을은 더욱 소란스러웠습니다.

인민 군대의 진격에 겁을 먹은 놈들은 도망칠 차비에 눈이 뒤집혔으니까요.

그러나 이 밤도 《소년 공작대》 원들은 진격해 나오는 인민 군대와 지원군 아저씨들을 환영하는 표어를 쓰기에 바빴습니다.

(12) 창경 동무는 오래'동안 몸에다 간직했던 공화국기를 소중히 꺼내며 히죽이 웃었습니다. 공화국기와 함께 용감히 싸워 온 지난 날의 보람찬 일들을 생각하는 이들의 가슴은 한 없이 설레였습니다.

《소년 공작대》원들은 공화국기를 들고 단숨에 조선 로동당 신흥군 영고면당 사무실 쪽으로 뛰여 갔습니다.

(13) 얼마동안 거만하게 펄럭이며 고향 마을을 더럽히던 미국기는 어린 《소년 공작대》원들의 손에서 갈기갈기 찢기우고 공화국기가 다시금 나붓기게 되였습니다.

공화국기는 우리의 용감한 소년단원들인 《소년 공작대》원들을 축하하는 듯 더욱 힘차게 나붓기였습니다.

◇한 효경◇

◇류 영욱◇

◇한 창경◇

◇손 창일◇

저녁 해'살을 등 뒤로 받으며 종태와 응선이는 고개'길 등마루를 단숨에 뛰여 올랐습니다.

마을에서 넘을 때보다 신작로 갈림'길에서 넘는 길은 좀 더 가파로운 편입니다.

종태와 응선이는 학교에서 돌아올 때면 의례히 누가 먼저 등마루까지 올라 가는가 내기를 하군 한답니다.

《어때 이 번엔 졌지?》.

응선이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한 번 이긴 걸 그래?》.

종태 역시 숨이 턱에 찬 소리로 데'구 했습니다.

《뭐가 한 번이야 저 번에도 지지 않았니?》.

《또 우기니? 그 땐 비긴 거야!》.

둘이는 또 쓸 데 없는 싱갱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쓸 데 없다기 보다도 서로 지기 싫어 하는 심사에서였습니다.

《얘! 그만 두고 좀 쉬여 가자》.

비교적 성미가 좀 누그러운 편인 종태가 하는 말에 발끈쟁이 응선이도 씩 웃고 말았습니다.

《응선아! 이게 무슨 소리냐? 안 들리니?》.

종태가 귀를 추기며 이상한 소리를 따라 눈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닭의 소리 비슷하구나》.

응선이는 이상한 소리를 따라 고개'길 한편 둥성이에 있는 돌각담으로 기여 올랐습니다.

《종태야! 빨리 올라 와! 이 걸 좀 보다니까 야! 참 이게 무슨 일일가?》.

응선이가 눈이 커서 떠드는 바람에 종태도 재빨리 돌각담 우로 기여 올랐습니다.

《웬 닭일가? 떡도 있네?》.

둘이는 목에서 피가 아직도 조금씩 흐르고 있는 닭 한 마리가 맥 빠진 몸뚱이를 뒤채기며 이따금 꾹—꾹 소리를 지르는 것을 한참이나 물끄러미 들여다 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알만 해, 난 어머니한테 들은 일이 있어, 이 돌무데기가 〈성황당〉이라구 귀신을 위하는 데래!》.

응선이가 언젠가 어머니와 같이 고개를 넘다가 어머니에게서 들은 기억을 더듬으며 말을 끼냈다.

이 돌무데기는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여기엔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빌었다는 것이였습니다.

《닭의 목을 왜 따 놓았을가?》.

종태는 응선이의 말을 듣고 나서 더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으라구 닭의 목을 따 놓고 간 사람이 누굴가 하고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쌀을 랑비한 사람이 밉기도 했습니다.

동리 우물'길에서 영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영수 오늘 왜 학교에 안 왔어요?》.

종태가 물었습니다.

《열이 몹시 나서 못 갔다. 무슨 병인지 갑자기 들어 누워 고통을 하질 않니?》.

영수 어머니는 퍽 근심스러운 얼굴이였습니다.

《그래요? 병원에 가 보셨나요?》.

《못 갔다. 이제 낫겠지!》.

《열이 높다면서 그냥 둬서 돼요? 어서 의사한테 보이세요》.

《글쎄!》.

물동이를 우물 돌 우에 놓고 난 영수 어머니는 무슨 더 할 말이 있는 듯 종태의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뒤로 따라 오던 응선이도 걸음을 멈췄습니다.

영수 어머니는 하려던 말을 꺼내려다 말고 놀란 눈으로 응선이를 바라 보고 있었습니다.

응선이는 목이 척 늘어진 닭 한 마리와 무슨 신문 꾸러미를 량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아니 거 웬 닭이냐? 또 그 꾸러민?》.

묻는 영수 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파래지고 있었습니다.

《〈성황당〉이란 데다 누가 내버린 거예요. 닭과 떡을 내버리다니 참 아까와서—》.

응선이는 천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걸 어쩔테냐?》.

《구어 먹든가 삶아 먹지요》.

이 말에 영수 어머니는 펄쩍 뛰며

《애! 큰 일 날 소릴 하누나! 거 누가 〈예방〉하느라구 했겠는데!》.

하고 몹시 근심된 낯을 했습니다.

《〈예방〉이 뭐에요?》.

이번엔 종태가 물었습니다.

《넌 모를게다. 그 닭이 어느 죽을 사람 대신에 죽는게란다. 그런 걸 어쩌자구 가져 왔니? 게다가 구어 먹겠다구? 큰 일 난다》.

영수 어머니는 진심으로 말했지만 두 아이는 믿지 않는 듯 싱글싱글 웃고 있었습니다.

《인제라도 빨리 가서 제 자리에 도로 놓아라 큰 화단 만나기 전에——》.

영수 어머니는 몹시 초조해 하는 것이였습니다.

밤중에 담임 선생이 의사를 데리고 영수를 찾아 왔습니다.

종태와 응선이가 선생께 알려서 이렇게 밤중에 찾아 온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영수 어머니는 한편 반갑기도 하고 한편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도 학교엘 왔댔는데 언제부터 그랬어요?》.

선생은 영수의 머리를 짚어 보며 걱정스런 얼굴로 물었습니다.

《밤중부터 그랬어요. 자던 애가 갑자기 열이 나면서 앓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무슨 딴 이야기나 나오지 않을가 속심 근심하면서 무슨 볼 일이 있는지 부엌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 의사는 청진기를 영수의 가슴에 대도 보고 체온기로 체온도 재 보고 나서

《너무 지나치게 먹었댔군!》.

하더니 주사약과 주사기를 가방에서 꺼내고 있었습니다.

《체한 걸 모르셨군요》.

선생이 하는 말에 어머니는 당황한 낯으로 말이 없었습니다.

《좀 어떻냐?》.

선생님이 주사를 맞은 영수의 팔을 만지며 물었습니다.

《속이 편안해 와요》.

하는 영수의 대답에 어머니는 기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좀 거리는 멀지만 이 다음엔 이런 일이 생기면 병원에 빨리 알려 주세요. 심상히 생각하다는 생명이 위험하니까요》.

의사의 말에 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성황당에 〈예방〉으로 갖다 놓았다는 닭을 구워 먹었는데 괜찮을가요》.

응선이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의사보다도 선생이 더 눈이 둥그래지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동네에 아직 그런 미신이 있단 말이냐?》.

하고 응선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뿌리가 없어지질 않았지요. 목구리도 하고 점도 치고 성황당에 빌기도 하고——》.

의사가 덧붙여 말했습니다.

《닭 주인을 찾아 줘야지 구워 먹어?》.

선생의 말에 모두 크게 웃었습니다.

《주인을 찾을랴니 누군지 알아야지요》.

응선이는 서슴없이 대'구했습니다.

《누군지 모른다? 그럴가? 마을에 집이 얼마나 많게——》.

선생이 이렇게 말하자 누웠던 영수가 몸에 힘을 주며 일어났습니다.

《애! 어쩔라구 무릴 하니? 더 누워 있어라!》.

어머니가 영수를 붙들며 말하자

《어머니!》

하고 영수는 눈에 눈물이 글썽 고이며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의 눈들이 영수와 어머니에게로 쏠렸습니다.

어머니는 영수의 입에서 더 말이 나오기 전에

《애들아! 내가 너희들을 속였다. 아니 조합도 동리도 다 속였다. 그게 내가 〈예방〉한 닭이다》.

하고 들릴랑 말랑한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두! 세상 일에 어두우시군! 〈성황당〉이 다 뭐요. 아까운 닭만 죽였지 그런다구 아들의 병이 저절로 낫겠소 하하하》.

의사가 하는 말에 모두 한 바탕 웃음을 터쳤습니다. 영수의 어머니도 소리없이 따라 웃었습니다.

(1958, 1, 12)

자강도는 1949년 1월에 평북도에서 갈라져 새로 생긴 도로서 량강도, 황해북도와 함께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는 도이다.

전체 면적의 92%가 산인 이 곳은 가는 곳마다 험한 산'발이요, 깊은 계곡이다. 이 산'발과 계곡은 천년 묵은 나무로 뒤덮여 있어 우리 나라에 있어서 산림 면적이 제일 넓은 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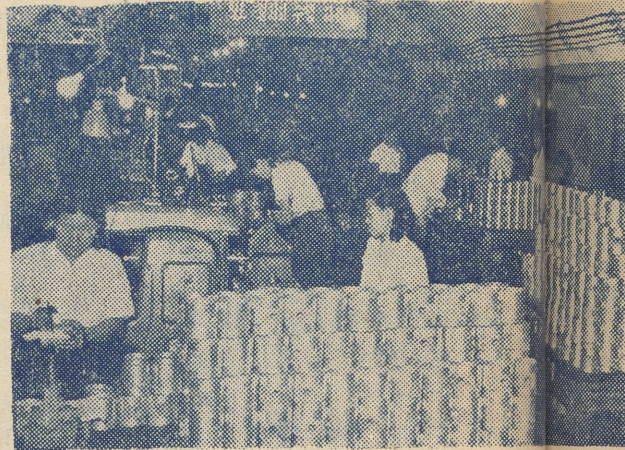
해방 후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이 지역을 새 공업 지대로 전변시켰고 림업과 목축업이 발전된 지대로 만들어 놓았다. 그리하여 지금 자강도는 우리 나라 인민 경제 발전에 중요한 도의 하나로 되였으며 해방전 헐벗고 굶주리던 이 곳 인민들은 행복한 새 생활을 꽃피우고 있다.

회천 공작 기계 공장의 일부

공업의 어머니 공장

우리 나라의 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우리 나라 인민 경제 여러 부문에서 필요한 공작 기계를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야 된다.

로동당은 앞날을 내다 보고 벌써 전쟁 기간에 공업의 어머니 공장으로 불리우는 공작 기계 공장을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회천에 세웠다. 지금 이 공장에서 만든 선반기, 볼반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공작 기계는 우리 나라 인민 경제 각 부문에 보내여지고 있다. 앞으로는 우리 나라에서 쓰고도 남을 기계들이 이 공장에서 만들어지게 된다.

이 밖에 회천 정밀 기계 공장을 비롯하여 많은 공장들이 있다. 자강도는 우리 나라에서 강력한 공업 지대를 이루었다.

회천 정밀 기계 공장의 일부

두 개의 발전소

자강도에는 두 개의 큰 발전소가 신설 중에 있다.

지금 건설 중인 독로강 발전소는 약 8만Kw의 전량을 가지고 래년이면 완공될 것이며 강계 발전소는 1961년에 일부 완공될 것이 예견된다. 그 때에 가면 자강도는 이 두 개 발전소에서 일군 전력에 의하여 더욱 발전할 것이다.

래년이면 완공될 독로강 발전소

건설되는 강계시의 근로자들의 다층 주택

명석도 많다

자강도에는 30 전에 지었다는 강계의 인풍루를 비롯하포의 세검정, 전천의 하무정 등 명승 고많다.

(인풍루)

풍부한 림산 자원

자강도는 우리 나라에서 량강도 다음으로 림산 자원이 많다. 6백여 정보나 되는 오가산 천연림을 비롯하여 화평, 덕우대, 랑림, 룡림, 고풍 등지는 울창한 밀림 지대를 이루고 있다. 일제는 1905년부터 이 림산 자원을 략탈했었다. 해방 후 이 곳에서 나는 원목들은 우리 나라 인민 경제 건설과 목재 가공업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목재 가공업에 있어서도 자강도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전천 석냥 공장, 강계 연필 공장을 비롯하여 만포, 화평 등은 목재 가공 중심지로 되고 있다.

(덕우대 림산 작업소에서의 개량 발구에 의한 원목 운반)

한 집에 소 한 마리 돼지 세 마리

자강도는 전체 면적의 겨우 8%만 농사 짓는 땅이지만 이 곳 농민들의 생활은 꽃피고 있다.

이 곳 농업 협동 조합은 다른 데와 달라 거의가 농사에 목축을 겸하고 있다. 지금 94%의 농호가 협동 조합에 망라되였는데 지난 해 알곡으로 매호당 1t 850kg와 현금 1만 9천원이 차례졌다.

옛날 《사람 못살 곳》이라던 오수덕에 국영 농목장이 생겼고 가는 곳마다 국영과 도영 목장 그리고 협동 조합 목장이 있다. 자강도는 지난 해 조선소 1호당 1두, 돼지 1호당 3두씩 차례지리만큼 축산업이 발전되였다.

아름다운 도시 강계

4층 5층 건물이 언제 강계에 있었던가. 지금 강계에는 4~5층의 건물이 우뚝우뚝 솟아 새 도시를 이룩하고 있다. 기차에서 내리자 첫눈에 뜨이는 강계 역사와 도 인민 위원회 청사, 국영 백화점, 길 량 옆에 일떠선 근로자들의 다층 주택 실로 강계는 현대적 도시로 일떠선다. 앞으로 강계시는 독로강 왼쪽의 독산 기슭에까지 도시가 넓어진다.

꿀도 많이 난다

협동 조합 마다 꿀벌을 쳐서 금년에 235톤의 꿀을 생산할 계획이다.

반 생활을 잘 하자

중앙 민청 학생 소년부 부부장
◇전 택 선◇

소년단원 동무들! 소년단에서의 반 생활은 전체 소년단원들이 즐겁고 보람 있는 나날을 보내도록 하며 분단과 대 사업을 훌륭히 도와 주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반에서는 모든 사업을 재미 있게 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반은 한 학급에서 공부하며 같은 마을에서 사는 소년단원들로 조직되였기 때문에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도 여러 가지 재미 있고 유익한 사업들을 많이 조직할 수 있습니다.

반에서는 모든 동무들의 취미와 능력에 맞는 일들을 조직할 수 있으며 매개 소년단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질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시킬 수 있습니다.

《소년단》잡지 작년 12호에 게재한 개성 선죽 중 학교 인민반 27분단 1반과 같이 독서 모임, 연예 발표, 견학 등 재미 있는 일을 잘 해 나가는 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 일부 반장들은 분단에서 시키는 일만 하면 되지, 또 어떤 반장은 반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사업을 조직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반 사업이 잘 되지 않는 데로부터 많은 소년단원 동무들이 적적한 나날을 보내게 되며 심지어 일부 동무들은 나쁜 일에까지 눈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반 사업을 흥미 있고 활기 있게 하며 매개 반 동무들이 즐거운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 반은 어떤 사업을 조직해야 하겠습니까?

반에서는 김 일성 원수를 비롯한 애국 선렬들의 빛나는 애국 전통을 배우며 본받기 위한 사업들과 우리 부모 형님들이 피땀으로 이루어 놓은 사회주의 조국을 무한히 사랑하도록 다양한 사업을 조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반에서는 항일 빨찌산 투사들과의 상봉, 이야기 모임들을 가지며 고향의 고적지와 전적지, 력사적 유물들을 답사하며 고향의 력사를 연구하는 사업을 많이 조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가와 지주놈들이 로동자, 농민들을 어떻게 착취하여 왔는가를 알기 위해 로동자, 농민들과의 상봉을 가지며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빛나는 로력 투쟁을 본받기 위하여 공장과 협동 조합을 견학하며 로력 영웅과 다수확 농민들과의 이야기 모임도 가져야 합니다.

반에서는 모든 소년단원들이 학습을 잘 하며 소년단의 영예를 어느 때 어데서나 잘 지킬 줄 아는 훌륭한 동무들이 되도록 도와 주기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조직해야 합니다.

만일 자기 반에서 학습에 뒤떨어진 동무가 있으면 그 리유를 잘 알아 가지고 전체 반원 동무들이 힘을 합해 친절히 도와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에서는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소년단원의 영예를 빛내인 소년 빨찌산들의 투쟁을 연구하며 그들의 투쟁을 내용으로 한 책과 영화 감상회들도 자주 가집시다.

반에서는 소년단원들이 가장 즐겨하는 체육 경기와 행군, 등산들을 조직하며 새로운 춤과 노래를 배워 주며 마을 할아버지들을 모셔다 재미나는 옛'이야기를 듣는 일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봄철을 맞으면서 반에서는 흥미 있고 유익한 사업들을 많이 조직할 수 있습니다. 반 동무들은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산으로, 들로, 바다로, 행군, 등산, 야유회들을 떠나며 산림 속 나무 우에 새둥지를 만들어 올리는 일이며 마을과 집 학교 주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식수 록화 및 화단을 꾸미는 일들도 조직해야 합니다.

반에서는 《꼬마 5개년 계획》활동에 전체 반 동무들을 적극 참가시키며 사회주의 건설에 일떠선 부모, 형님들의 일'손을 도와 드리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을의 부모들 가운데 아직 사회주의 길에 들어 서지 않았거나 나라 일에 해를 끼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꼬마 선전원의 역할을 잘 놀아야 합니다.

이 밖에도 **반에서는** 분단에서 맡겨진 사업들을 책임성 있게 실행하며 매개 반 동무들로 하여금 자기가 속하고 있는 반이 자기 분단에서 제일 우수한 반이 되도록 힘쓰게 해야 합니다.

매개 반은 자기들의 사업 일지를 잘 정리해야 합니다. 반 일지에는 전체 반 동무들의 의견과 요구가 충분히 반영된 일주일 동안의 반 계획을 세워야 하며 그리고 반에서 실행한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빠짐없이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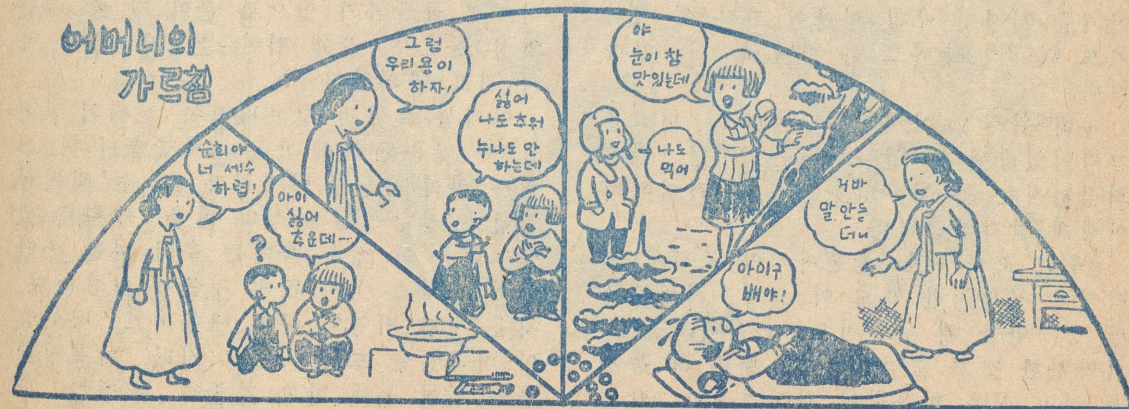
우리들의 그림 페지

평북 삭주 제 7중 학교 리 의제 안

림 영 환 그림

우리들의 그림 페지

평남 문덕 제 6중 학교
1학년 5반 윤 옥희 안

림 영 환 그림

꽃 피는 마을의 소년단원들

◇최 화규◇

훈훈한 홍'골 농업 협동 조합 사무실에 서였습니다.

내가 이 마을을 찾아 오느라고 얼었던 몸을 녹이면서 관리 위원장 량 승덕 아저씨에게 《무엇부터 물을가?》하고 생각하는데 창 밖으로 왁작 떠들며 지나 가는 소년단원들이 보였습니다.

말쑥한 동복을 입은 그들은 신이 나서 충모네 집에서 재봉기를 사온 이야기며 라지오와 이불장을 사온 집들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저마다 새로 사가는 학습장과 검은 운동화들이 쥐여져 있었습니다.

《이 마을 소년단원들인가요?》.

《그렇습니다. 훌륭한 애들이지요》라고 관리 위원장 아저씨가 말하는데 나의 옆에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가 《그 애들의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마을이 자라 온 이야기도 해야지요》라고 한 마디 툭 하시였습니다.

관리 위원장 아저씨도 옳다고 머리를 끄덕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지난 날을 회상하시는 듯 입수염을 만지작거리더니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 때는 물론이지만 조합이 조직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 고장 사람들은 밭 농사만을 해 왔습지요. 논이라고는 손바닥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벼 농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했지만 밭을 논으로 개답해 보겠다는 생각은 조금도 못해 왔습니다.

략탈을 일삼던 일본놈들도 논을 만들어 보겠다고 측량까지 하다 그만 두었고 김 회수란 지주 놈도 꿈꾸다 내버렸답니다.

그런데 조합이 조직되면서 밭을 논으로 만들자는 의견들이 나왔을 때도 처음엔 말썽이 많았습니다. 민청원들이 두 차례나 회의를 하고 개답 사업에 나섰을 때까지도 우리 늙은 축들은 여전히 반대만 했습지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요. 이 마을 소년들까지 옳은 일이라고 삽을 메고 나섰는데 반대했으니 말입니다.

그 후 우리들도 일에 참가했습니다.

산을 깎아 내여 관수로를 째고 서흥강 물줄기를 중만벌에 끌어 들이던 때의 기쁨은 내 한평생 두고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첫 물줄기가 밭으로 들어 갈 때 나는 정신 없이 막 물에 뛰여 들어가 물을 움켜 쥐고 기뻐했다우》.

여기까지 말한 할아버지는 그 때의 감격을 못 잊은듯 잠시 말을 그치였습니다. 그러자 관리 위원장 아저씨가 《그 논'벌에서 작년에 정당 4톤 이상의 벼를 수확해 냈습니다. 그 성과 속에는 우리 마을 소년들의 로력도 적지 않게 깃들어 있습니다. 처음 개답 사업에 나설 때부터도 아이들이 어른들을 도와 나섰고 지난 여름철엔 풀을 베여 논에 깔고 가물과 투쟁할 때 물도 길어 주군 했으니까요》라고 하시였습니다.

그리고는 량 충모네 집에 가면 이보다 더 재미 있는 이야기를 들을 것이라고 나에게 귀뜸해 주는 것이였습니다.

이 마을 소년단원들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던 나는 관리 위원회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올해에 협동 조합에서 새로 지은 열 채의 기와집을 지나 충모네 집을 찾았을 때 그의 어머니는 부엌에서 가마니를 짜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깨끗했습니다. 벽에는 화보에서 오려낸 아름다운 그림이 붙어 있었고 사진틀, 시계, 거울 등이 보기 좋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한 구석에는 작으마한 책상이 놓여 있었는데 그 옆에는 새로 사온 재봉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나의 마음을 끈 것은 깨끗하게 만들어진 동복 두 벌이였습니다.

《이 재봉기로 만든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은 것은 충모의 것이고 큰 것은 그의 누나의 것이지요. 올해 재봉기를 사오게 된 것은 지난 해에 협동 조합에 든 덕택이고 협동 조합에 들어간 것은 이 애들이 나의 그릇된 생각을 깨우쳐 주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갚음으로 그들의 옷을 먼저 만들었답니다》 하고 어머니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충모 어머니와 함께 가마니를 짜고 계시던 량 경옥의 어머니도 웃음을 지으면서 《나도 그렇게 해야겠어요》하고 말하는 것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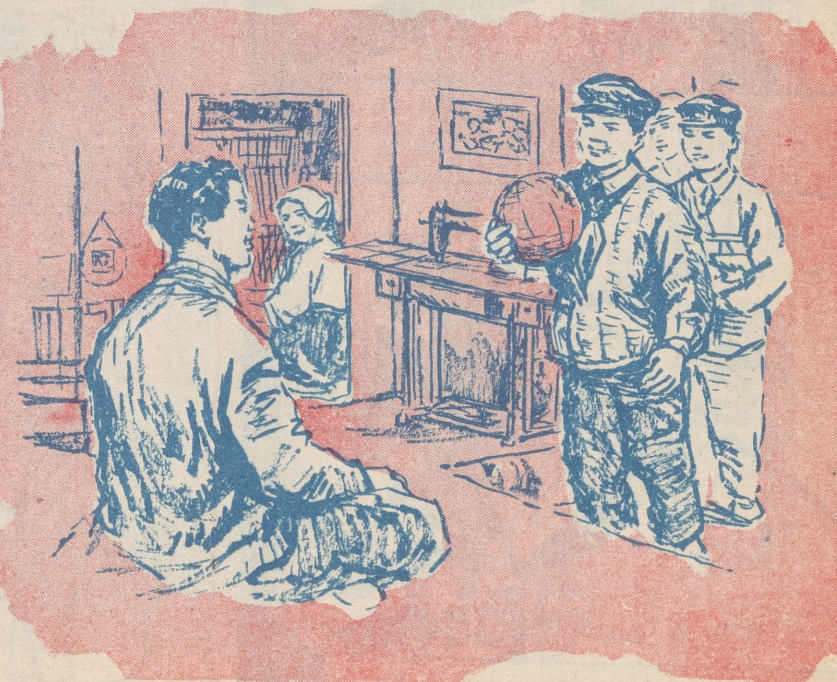
알고 보니 그 어머니가 협동 조합에 들어 간데는 딸인 량 경옥이와 그의 언니의 숨은 노력이 있는 것이였습니다.

그 때였습니다. 방문을 열고 충모와 그의 반 동무들이 들어 왔습니다. 충모의 손에는 커다란 롱구뽈이 쥐여져 있었고 그들의 이마에서는 모두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롱구를 하다 들어 온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면서 학교에서 분단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고 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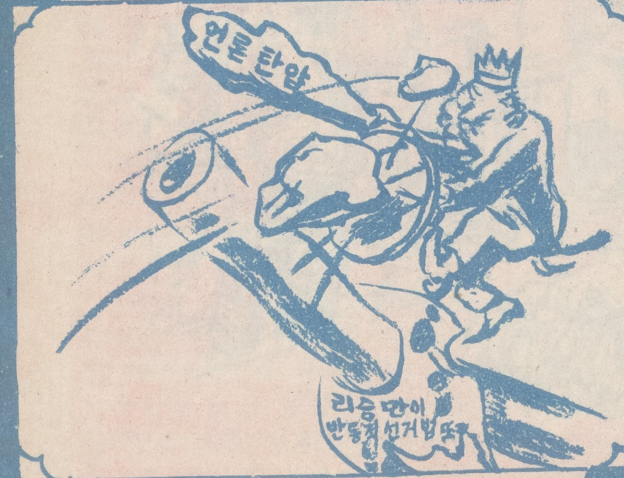
량 희렬이가 성큼 나서면서 방학이지만 학습을 꾸준히 하면서 애국 렬사 가족들을 원호하는 일, 성인 학교 사업을 방조하는 일, 농업 협동 조합을 돕는 일, 부모를 돕는 일을 조직하고 꼭꼭 실천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모가 가지고 있는 롱구 뽈은 협동 조합에서 사다 준 것이라고 자랑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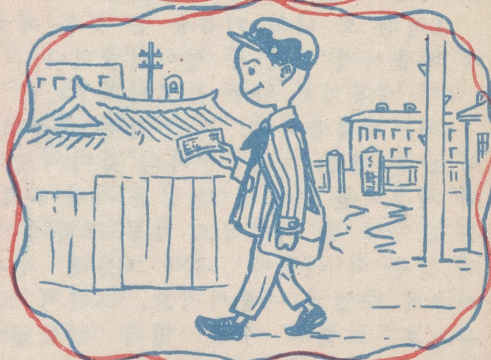
한 낮 때가 지나서 충모네 집을 나선 나는 이 마을에 협동 조합이 생기면서 새로 생긴 탁아소, 정미소, 제재소, 학교들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집집에서 울려 오는 행복한 웃음 소리와 라지오에서 울려 퍼지는 낮 방송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협동 조합을 자랑할 때에 여러 가지로 우리를 도와 준 소년단원들을 또한 자랑합니다》라고 하던 관리 위원장 아저씨의 말씀을 다시금 나는 생각하면서 꽃피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황북 은파군 홍'골 농업 협동 조합에서—

헛된 리 승만의 꿈

1. 리 승만은 미제의 대포 우에서 《대통령》이 되여 나라 팔아 먹는 일만 일삼아 왔으나 인민들의 반대로 그것이 뜻 대로 되지 않아 악법이란 악법은 다 만들어 왔다.

2. 그래도 인민들이 반대하니까 이번에는 인민들의 입과 귀와 눈을 막아 버리며 붗에 철쇠를채우는 반동적 선거법을 만들어 냈다.

3. 이런 언론 탄압의 악법으로 리 승만이 자기 졸개를 긁어 모으는 민의원 선거를 하여 잔명을 이어 보려하나 그것은 헛된 꿈이다.

우리들의 그림 페지

즐거운 반생활

김 신 숙 그림

건설된 흥남 질안탑

흥남 3중 김 주 석 그림

락서

황북 신계군 부용 인민 학교 리 신원 안

일본에 있는 조선 동포들의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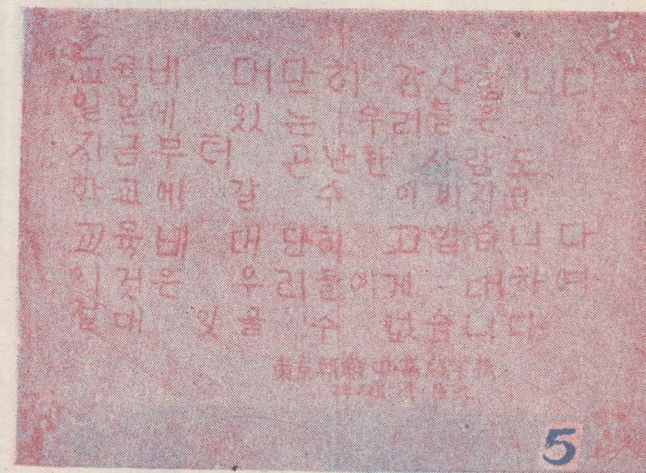
지난 1월에 평양시 대동문 영화관에서는 재일본 조선 동포 사진 전람회가 열렸었다. 이 전람회에서 우리 인민들과 소년들은 일본에 있는 60만 조선 동포들이 자기들의 민주주의적 민족적 권리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싸우는 모습과 생활 모습을 보았다.

①재 일본 조선 동포 사진 전람회를 관람하는 소년들.

②《심청전》을 끝마치고.(요꼬하마 조선인 초중 학교 써클)

③기쁨에 넘쳐 운동회를 하는 학생들.

④미제의 조선 정전 협정 파괴 행위에 대한 항의 결의문을 전달하기 위하여 미국 대사관을 찾아간 재 일본 조선 동포 대표단.

⑤두 차례에 걸쳐 조국으로부터 5,000 만원의 교육비와 장학금을 받고 조국의 배려에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수놓았다.

나는 이겨 나간다

◇재일본 니시와끼 조선인 소중학교 중 3년 박 곡 지◇

나는 새벽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직장(방직 공장)에 나간다. 그 숨 막히는 공기 속에서 하루 종일 선채 일을 한다. 이 얼마나 괴로운 생활인가!

물론 나 혼자만이 아니라 머나 먼 시고꾸 상잉 촌(일본 지명)에서까지 가정 생활이 곤난해서 온 나어린 일본 동무들도 있다.

찰깍찰깍 머리가 아프게 들리는 천짜는 소리를 들어 가며 일을 하고 있는 우리는 언제나 눈물이 나온다. 나는 아직 어린 몸이니 바쁜 가정 일을 돕기도 하고 동무들과도 재미 있게 놀면서 집에서 생활하고 싶다. 그러나 나는 공기가 나쁜 그 속에서 다리가 아프도록 매일 매일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정 형편은 어쩌할 수 없다. 그런데다가 아버지도 요사이는 일이 없어서 놀기만 하고 계신다.

며칠 전에 점심 때가 되여 집으로 돌아 오는 길에 어떤 아저씨를 만났을 때 《너도 공장에 다니니》하는 물음에 나의 얼굴은 저으기 붉어졌다.

지금도 가끔 머리 속에 떠 오르는 생각은, 왜 다른 동무들은 기쁜 얼굴로 낮에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나 혼자만은 하루 종일 공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나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하다가는 눈물을 흘리군 한다.

그러나 지금 나의 마음은 조금도 동요되지 않는다. 아무리 어린 몸이라도 자기 집 식구들을 살리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해 부지런히 일을 한다는 것은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곤난한 생활 속에서도 나는 직장에서 돌아와 밤에는 우리 학교에서 자기 조국과 인민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열심히 배운다.

모든 학과 성적을 높이며 장래 조국에 돌아 가서라도 부끄럽지 않을만한 조국의 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춘하추동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언제나 진리와 정의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어찌 내가 우울한 생각만 하고 있을 수 있겠는가! 도리여 나의 마음은 밝으며 한없는 자랑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 재일본 조선 사람들은 대부분이 아무리 일하여도 돈 없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배불리 먹고 노는 자들은 늘 놀아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이 이 사회의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새 조선의 주인공으로 성장하는 사람이다. 우리의 승리의 날은 바로 눈 앞에 왔다.

지금 나는 다시 이렇게 굳게 맹세한다.

《우리 말과 글을 부지런히 배워 조국과 수령님이 가르치시는 길로 용감하게 전진하리라》고. (19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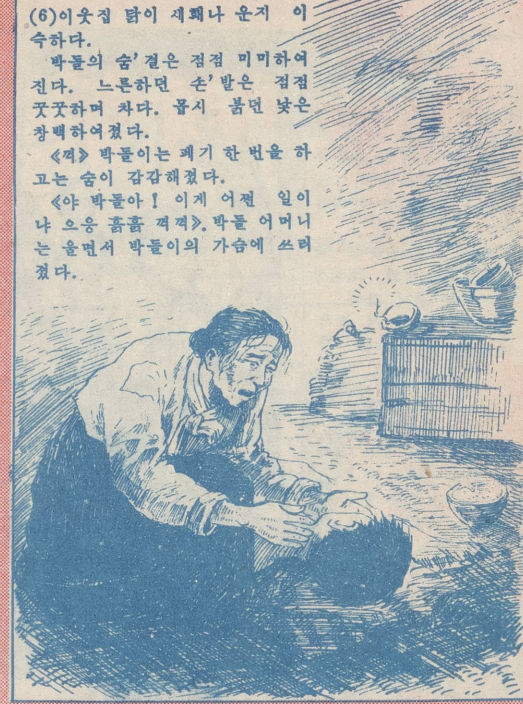
박돌의죽음
그림 남현주
이 그림 이야기는 최 서해 선생이 1925년에 쓴 《박돌의 죽음》을 가지고 꾸민 것이다.
이 소설을 통하여 우리들은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으며 희생되였는가를 볼 수 있다. 또한 조직적인 투쟁은 못되나 계급의 원쑤를 반대하여 싸운 형상을 본다.

(1) 밤은 자정이 훨씬 넘었다….
어둠 속에 좁은 골목으로 허둥 지둥 뛰여 나온 그림자는 대문에 탁 실린다.
《문 좀 벗겨 주오!》. 녀자의 목소리다.
녀자가 애처로운 소리를 치면서 문을 치고 밀고 하여 한참만에야 선잠 깬 주인 녀편네가 나왔다. 《난 또 뉘기라구? 어째서 남 자는 밤에 이 야단이요?》. 주인 녀편네의 수작이다.
《박돌이 앓아서 그럽메! 초시 있소?》.
《있기는 있소》 하고 돌아선 녀편네는 령감에게 의원이구 약국이구 걷어치우라고 야단이다.

(2)《하—그거 안 됐군… 그러나 나는 갈 수 없는데…》. 얼굴에 기름이 번질번질한 의사(김 초시)는 첫 마디에 몸이 편치 않다고 박돌 어머니의 말을 거절한다.
《애비 없이 불쌍히 자란 그게(박돌)죽어서 쓰겠소? 거저 초시게 목숨이 달렸으니 살려 주오》 라고 사정한다.
《별말을 다하오 …글쎄 하늘이 무너져도 못가겠소》 의사의 대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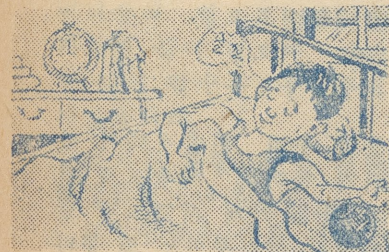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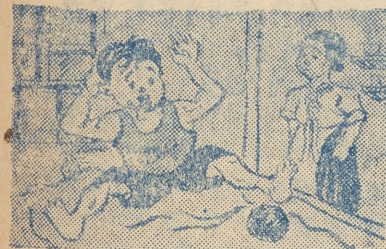
(3) 《제발 살려 줍시오》.
이 번에는 주인 녀편네까지 못 간다고 방정을 편다.
《그러문 약이라두 지어 주오. 돼지 새끼라도 팔아서 드릴테니 지어 주오》.
《약종이 부족해서 약을 못 짓는데…》.
《에구 내 박돌이 죽는구나 한심한 세상두 있는게? 돈이 없다고 너무 없이 보지 마오》. 울음에 젖은 목소리다.
《에 곤하군, 아—함— 어서 가 보오》.

(4)박돌 어머니는 헛손치고 돌아 왔다.
《에구 제마(어머니)! 에구 배야》.
박돌이는 이를 갈고 두 손으로 배를 웅크며 잡으면서 몸 지접할 곳 모른다.
《에구 내 죽겠소! 왝 왝》코와 입으로 토하며 또 설사를 한다. 박돌이는 귤이 먹고 싶다고 하다가 없다니까 물을 찾는다. 박돌이는 낯빛이 검푸르면서 도끼눈을 뜨며 이를 빡 간다.

(5)뒤'집 젊은 주인이 나왔다. 《체하잖았소? 어제 밤에 무스거 먹었소?》.
《감자를 삶아 먹구…뒤' 집에서 버린 고등에 대가리를 먹은 것 밖엔 없는데》.
《우리 집에 쑥이 있으니 갖다 뜸이나 떠 주오. 에익 축축하게 썩은 고기 대가리를 먹다니?》.
《에구 한심한 세상도 있는게. 의원만 그런줄 알았더니 모두 그렇구나》.

(6)이웃집 닭이 새홰나 운지 이슥하다.
박돌의 숨'결은 점점 미미하여 진다. 느른하던 손'발은 점점 꿋꿋하며 차다. 몹시 붉던 낯은 창백하여졌다.
《꺽》 박돌이는 꽤기 한 번을 하고는 숨이 감감해졌다.
《야 박돌아! 이게 어쩐 일이냐 으응 흠흠 꺽꺽》. 박돌 어머니는 울면서 박돌이의 가슴에 쓰러졌다.

(7)붉은 아침 볕은 뚫어지고 찢기고 그을은 창문에 따뜻이 비치였다.
《박돌아 야 박돌아—》박돌 어머니는 박돌이를 부르다가 다시 쓰러지면서 《항상 배를 곯다가 좋은 세상도 못보고 죽다니? 이 놈의 입이 원쉬가 돼서 학교도 못 보내고—흠흠》 하고 느낀다. 박돌 어머니는 검붉은 선지피를 토하고 가슴을 부등키고 까무러쳤다.

우리들의 그림 페지

강원도 원산
전 영 철 그림

(1) 일남이는 어제 분단 모임에서 다시는 지각 안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도 오늘 아침 또 아홉시가 다 되도록…쿨쿨

(2) 어머니가 몇 차례 깨워서야 일어난 일남이 《어머니! 지금 몇 시야요?》.

평남 룡강군 월매 중학교 인민반
4의2 (8분단) 정 정 숙

손꼽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방학 날은 드디여 돌아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번 제 1 학기에는 누구가 최우등인지 몰라서 우리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 보면서 궁금해 하였습니다. 대 모임이 끝난 뒤 우리들은 운동장에 모여 대렬을 정돈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웃으면서 성적증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들은 마음이 더 조여들었습니다. 드디여 선생님은 차례로 성명을 부르면서 성적증을 우리들에게 내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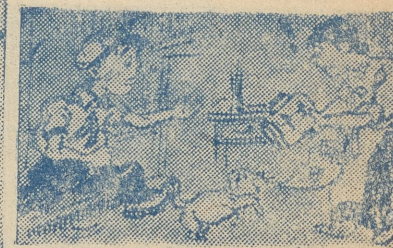
나는 얼핏 성적증을 받아 두 손으로 조심히 펼쳐 보았습니다. 모두다 5 점이였습니다. 나는 기뻐서 조급한 마음을 안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성적증을 다 내주고 우리들에게 《방학 동안에 생활 세칙을 잘 지키면서 숙제를 제 힘으로 다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종례를 끝낸 우리들은

(3) 에크 늦었구나. 불이 나게 옷을 입고 냅다 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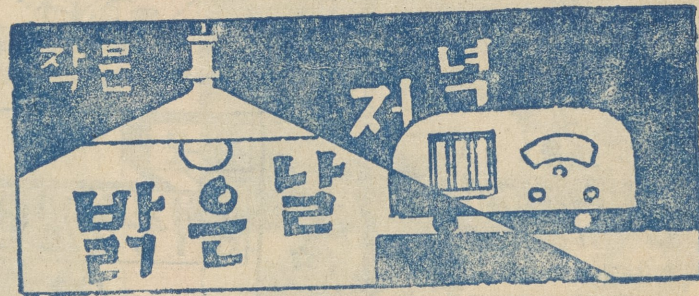
길'거리에는 학교 가는 동무들이라곤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4) 아차! 이 일을 어찌나!! 일남이는 책 가방을 안 가지고 뛰여 나왔던 것이다.

(5) 집으로 다시 뛰여 온 일남이 《어머니! 책 가방!》하고 숨이 턱에 닿아 헐떡기렸다.

제각기 운동장에서 흩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성적증을 접은채 오른 손에 들고 총총 걸음으로 집까지 달려 왔습니다. 집에 와 보니 마침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나는 성적증을 조심히 어머니에게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성적증을 들여다 보시더니 빙그레 웃음을 지으며 《열심히 한 보람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조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빠도 기뻐하면서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보니 2학년 동생도 최우등, 나도 최우등, 오빠도 최우등, 셋이 모두다 최우등을 했습니다.

이날 밤, 우리 집에서는 웃음과 기쁨이 터졌습니다. 어머니는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방학에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그래야만 2 학기에도 최우등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나는 선생님의 말씀과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방학 동안에 더 열심히 공부할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내여 준 숙제는 물론, 배운 것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복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는 더욱 더 열심히 공부하며 몸을 튼튼히 하여 나라의 훌륭한 기둥'감이 되겠다고 몇번이고 맹세하였습니다.

갑산 고중 초급반 2학년

리 혜 숙

오늘은 온 식구의 얼굴에서 웃음이 가실 줄 몰랐습니다.

나는 토끼처럼 방 안에서 깡충깡충 뛰였습니다. 그처럼 엄격하신 할아버지도 팔'자(八)수염을 쓰다듬으시며 벙글벙글 웃으십니다.

마당에서는 검둥이가 신기한 듯이 두 눈을 슴벅거리며 전등'불을 올려다 보고 있습니다.

어찌 이런 날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산'골 중에서도 두메 산'골인 우리 마을에까지 전기가 들어와 처음으로 전기'불을 켜게 되였으니 말이지요. 그 뿐이면 또 몰라요. 책상 우에는 어제까지 없던 반질반질한 라지오가 척 앉아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고 저녁 인사를 하지 않겠어요.

나와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까지 전등과 라지오를 힐끔힐끔 바라 보시며 벙글벙글 웃군 합니다.

이 기쁜 날은 저절로 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봄 어느 날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평벌에 아마를 심어 올 가을에는 전기를 보게 된단다》.

그 후 어느 날 우리 마을에는 뜨락또르 두 대가 우르릉거리며 굴러 왔습니다. 뜨락또르는 오자'바람으로 몹시도 가파로운 자평산에 올라 가더니 무연한 자평벌을 갈아 엎는 것이였어요.

자평벌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들의 힘으로 아마가 파랗게 돋아 났으며 아마는 날이 갈수록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아마를 뽑던 날은 정말 굉장하였답니다.

조합원들은 물론 가족들도 모두 떨쳐 나왔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올라가서 아마'단을 한데 모아 놓는 일을 하였지요.

조합 사무실 마당에 태산 처럼 쌓여 있던 아마'더미는 8 톤씩 싣는다는 자동차가 며칠을 날랐는지 모릅니다.

글쎄 그 아마가 이 마을 사람들에게 재미 있는 노래와 이야기를 들려 주는 확성기도 그리고 정미소도 제분소도 선물한 것입니다.

이 뿐이겠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명절 날 처럼 번듯이 새 옷들로 단장한 것도 아마의 덕분이랍니다.

그러나 이 아마는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의 땀방울로 된 것이니 이 모든 선물들도 오직 로동의 열매인 셈이지요.

조합에서 돌아 오신 아버지도 라지오 앞에 앉아서 벙글거리십니다.

《협동 조합이 조직되지 않았던들 누가 이런 세상에서 살 꿈이나 꾸었겠니, 정말 조합이란 좋은 것이지》.

할아버지는 곰방대를 뻑뻑 빨시며 혼자'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이게 다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혜택이웨다》. 아버지도 할아버지 말씀에 덩달아 말씀하였습니다.

《참 그렇긴 그래…옛날에야 뼈빠지도록 일해도 그 왜놈들과 지주들이 다 긁어가고 나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으니 말이지 생각하면 치가 떨릴 일이니라》.

온 식구는 여전히 눈부신 전등'불을 쳐다보며 기뻐합니다. 라디오에서는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흘러 나와 어깨 춤이 저절로 나갑니다.

고 침

소년단 1호에서 《아무래도 이상했다》의 기사 중 김일규는 정 일규이고 그가 다니는 현재 학교명은 송화군 사기 중학교이다.

(6) 《저 버릇을 어떻게 고치나》 어머니는 뛰어가는 아들의 뒤'모습을 바라보며 근심에 잠겼다.

(7) 땀이 방울져 떨어지도록 뛰면서도 일남이는 단 한 가지 생각 《어떻게 핑게를 댈가!》고

(8) 뜻밖에 아저씨와 마주친 일남이 《아저씨 왜 직장에 안 가셨나요》
아저씨는 웃으면서 《얘 정신 나갔나. 오늘은 일요일인걸 모르나?》.

(9) 집으로 돌아온 일남이는 너무나 기뻐서 벙글거리며 《어머니 오늘은 글쎄 일요일이예요》.
《다른 애들은 삽을 가지고 가던데!?》.

(10) 큰 근심이 사라졌는가 했더니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생각났다. 《래일은 운동장에 나무를 심읍시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오시오》 하던 선생님의 말씀이…

(11) 《이것 야단 났군! 어머니! 삽을 줘요. 오늘은 식수하는 날이예요》 일남이가 덤비는 바람에 어머니는 어이 없어 말도 못했다.

(12) 열두시가 다 되어서야 일남이는 학교에 나왔다.
식수는 벌써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13) 그러나 일남이는 동무들과 함께 일을 열심히 끝내고 새 기분으로 돌아 오며 마음 속에 다졌다. 《다시는 지각을 하지 않으리라》고——

△남반부 농촌의 이야기△

소작땅마저 뗀단 말인가

정 2월도 지나고 3월이라 봄은 창월리에도 찾아 왔다. 밭에는 보리 잎이 파릿파릿 돋아나고 있다. 태수는 양지바른 벽에 기대여 앉아서 먼 곳을 바라보며 휘—한숨을 짓고 하염없이 생각에 잠기고 있었다. 만물이 살아나고 새들도 기꺼이 노래 부르는 봄이건만 태수에게는 봄이 돌아 올 때마다 근심과 걱정이 앞섰다. 태수는 며칠 있으면 국민 학교 6학년이 된다. 쪼들리는 살림 때문에 그는 열살되던 해 봄에 비로소 국민 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가난하고 돈이 없어 학비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태수는 담임 선생에게서 매맞는 것쯤은 일수였으며 더우기 학년말이 되면 근심이 태산 같았다.

바로 이 날도 몇달 밀린 《사친 회비》, 《부독본 값》, 《시설비》, 《학급비》 도합 2,500환을 가져와야 진급 시험을 치를 수 있다고 한 눈딱부리 담임 선생의 호령이 내렸기 때문에 태수는 사흘째 학교에 못 가고 있었다. 태수 아버지는 태수가 안타까와하는 꼴을 참아 볼 수 없어서 버드네 마을 영석네 집에 가서 돈푼이나 마련해 오겠다고 아침 일찌기 집을 나갔다. 그래 태수는 혹시 아버지가 좋은 소식이라도 가져 올가 하고 이렇게 밖에 나와 앉아 아버지를 기다리며 이런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어느덧 해는 서산에 지고 어둠이 깃들었다. 그런데 태수 아버지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누이 동생 태옥이와 방 한구석에서 자고 있다. 태수는 침침한 등잔'불 밑에서 책을 읽다가 깜박 잠이 들었는 데 머리말에서 《탁탁》하는 소리에 잠을 깨였다. 언제 오셨는지 아버지는 어머니와 마주 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서 재를 터느라고 담배'대로 재털이를 《탁탁》 쳤다.

《그래 빈 손으로 돌아 오셨군요》.

《빈 손으로 온 것만이면 좀 낫겠소. 래일까지 비료 값과 지난 해 꾸어 온 쌀을 내지 못하면 땅을 떼겠다고 차 지주란 놈이 울르더라우……》하며 아버지는 한숨을 길게 내쉬였다. 얼'결에 이 말을 들은 태수의 어린 가슴은 천 만길 깊은 낭떨어지에서 떨어지는 것 같았고 눈 앞은 캄캄해 왔다.

아아! 다시는 학교를 못다니게 되는구나, 거게다 손바닥만한 땅마저 지주놈에게 떼우게 되면 장차 우린 어떻게 살아 나간단 말인가! 태수의 여윈 량볼에는 두 줄기 눈물이 흘렀다.

• 지난 해에도 미군이 군사 기지를 닦는 통에 땅을 떼우고 살 수가 없어 정든 고향을 떠난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든가! 미군에게 땅을 떼우고 지주의 소작 땅마저 떼우니 어떻게 살아 나간단 말인가! 오늘도 살았으니 살았다고 하지 개사냥 하듯 조선 사람을 총질로 죽이는 미군놈들에게 언제 죽을지조차 모른다. 미군이 산에 칡뿌리 캐러 간 소년을 총으로 쏘아 죽였고 학교 가는 학생을 무턱 대고 쏘아 죽인 일 등 무시무시한 소식을 안들은 날이 있었는가!

태수는 이 모든 일을 생각하면 할수록 원통하고 분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껌벅이든 등'불마저 꺼지고 보니 어둠마저 태수의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

이튿날 새벽 오 서방이 아버지를 찾아 왔다. 얼굴이 둥글고 몸집이 단단한 오 서방은 그 전에 이 마을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땅도 없고 살아 나갈 길 막막하여 읍내 철공장에서 일하였다. 그러나 얼마 전에 그 공장이 망하게 되자 그 일자리마저 잃었다. 오 서방은 아버지와 퍽 친한 사이여서 가끔 와서는 읍내 소식이며 세상 이야기를 들려 주었고 때로는 가만가만 수군거리기도 하였다.

《여보게, 북조선에서는 농민들이 서로 힘을 합쳐 농사를 짓고 한집안 식구처럼 재미 있게 산다네! 그 뿐이겠나, 땅을 기계루 갈구……참말 꿈같은 얘기지, 그래서 지금 그 곳 농민들은 여기 백섬지기 부자가 부럽지 않게 되였데… 우리가 못사는 거야 미국놈 탓이지. 그 놈들만 없으면야 어디 리 승만이 하룬들 배기겠나. 어림도 없지》하면서 오 서방은 북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태수는 오 서방의 이런 말 뜻을 깊이 알 수 없었지만 아무튼 북조선 농민들이 저희들처럼 배를 곯지 않고 잘 살고 있다는 것만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날 오 서방은 여늬 날과 달리 무척 성난 얼굴을 하고 찾아 왔다.

《여보게, 태수 아버지, 오늘 오후에 차지주 놈이 군 서기를 데리고 이 마을에 온다는 소식 들었나? 풀뿌리도 캐 먹기 힘들어 하는 농민들에게서 무슨 돈과 쌀을 짜내려 온다는 말인가? 일전에 저 문호리 농민들이 면사무소를 찾아 가서 항의문을 냈다는 소식 들었지, 우리들도 힘을 합쳐서 미국놈과 한 패인 놈들에게 땅을 떼우지 않도록 해야지 않겠나》하며 오 서방은 태수 아버지의 두 손을 힘 있게 잡았다.

그 때 태수는 번쩍이는 아버지의 눈을 보았다. 한참 후에 앞 뒤' 마을 농민들 십여명이 태수네 집에 모였다. 거기에는 버드네 마을 영석이 아버지도 끼여 있었다.

방안에 모인 그들은 오후에 마을 농민들이 읍에서 들어 오는 마을 어구에 주저앉아 차 지주놈이 동리에 한 발자욱도 발을 들여 놓지 못하게 싸울 것을 의논하고 서로 굳게 다짐하였다.

뚫어진 창문으로 스며드는 아침 해'살은 좁은 방안을 환히 비쳐 주었다.
태수 아버지는 창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 뜨락으로 나섰다. 하늘은 맑게 개여 북으로 트이였다. 《그렇다 우리도 북조선 농민들처럼 땅의 영원한 주인이 되기 위해서 앉아서 죽느니보다 일어나 싸우자》. 태수 아버지는 공화국기 휘날리는 조국의 품을 그리며 이렇게 입속 말로 부르짖었다. 오 서방은 《자 가세!》하고 태수 아버지의 어깨를 툭 치며 앞장 서 나갔다.

아버지와 오서방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힘차게 걸어 가는 뒤' 모습을 보고 섰던 태수도 두 주먹을 부르쥐고 아버지 뒤를 따라 뛰여 갔다.

체코슬로바키아 동화

꾀병쟁이 또네끄의 꾀병

한 번은 곤자에게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곤자—체코슬로바키야의 옛 동화들에 많이 나오는 주인공—역주)

그는 어느 부자 마누라네 집에서 머슴살이를 했더랍니다. 그 부자 마누라에게는 아들 형제가 있었는데, 그들은 그저 건들건들 놀고 먹었답니다. 그래서 곤자는 자기 일도 하고 그들의 시중도 들어야 했습니다. 작은 아들 또네끄가 특히 게을렀지요. 어머니가 그 애에게 무슨 일을 시킬라치면, 그는 곧 꾀병을 앓는 것이였습니다.

어느 날 또네끄에게 산으로 나무하러 갈 차례가 돌아 왔습니다. 그러자 그는 당장 꾀병을 부리며 앓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지요.

《아유, 어머니, 머리 아파요! 아유, 어머니, 배두 아파!》.

물론 또네끄는 어머니의 귀염둥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와락 겁을 내며 곤자에게 이렇게 일렀지요.

《빨리 약방에 가서 또네끄의 약을 사와. 꾸물거렸다간 혼 날 줄 알어!》.

주인 마누라한테 모진 매질을 당했던 쓰라린 경험이 있는 터이라, 곤자는 힘껏 달려 갔습니다. 그리고 약방으로 뛰여 들어 가 문을 쾅 닫다가…그만 유리를 깨뜨렸지요.

약방 주인은 말도 못할 지경으로 노발대발해서 곤자에게 눈알만 부라렸습니다. 그러나 곤자는 공손히 절을 하며 말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인님, 우리 댁 또네끄가 앓아서 약을 사러 왔습니다》.

《오냐, 약을 주마!》 하고 약방 주인은 버럭 고함을 지르더니, 몽둥이를 들고 곤자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약이다! 이게!》.

물론 다른 사람이라면 달아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곤자는 매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유리를 깨뜨렸으니, 매를 맞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했고, 더우기 약방 주인은 늙은이여서, 그의 매는 자기네 주인 마누라처럼 맵지 않았으니까요. 곤자의 두터운 쟈케트에서는 다만 먼지가 날아날 뿐이였지요. 마침내 약방 주인이 제풀에 지쳐 버리자, 곤자는 다시금 공손히 절을 하며 말하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인님 제가 유리는 끼워 드릴테니 근심 마십시오》.

곤자가 문턱에 들어서자마자, 주인 마누라는 《어서 약을 내놔!》 빽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쩌면 좋을지 모른겠군요, 마님》 하고 곤자는 대답하였지요. 《자칫하면 이 약 때문에 또네끄의 병이 덧칠지도 모른겠어요》.

《닥쳐!》 주인 마누라가 다시 웨쳤습니다. 《약방에서 구해 온 걸 어서 또네끄한테 줘라》.

이 말과 함께 곤자는 몽둥이를 들고 또네끄의 등때기를 몇대 후려 갈겼습니다.

《내 구해 온게 이게다!》.

또네끄는 침대에서 뛰여내려, 산으로 나무를 하러 달려 갔습니다. 그러자 곤자는 웃으며 말하였지요.

《보세요, 마님, 또네끄의 병이 나았어요!》.

잡지 《뻬오네르》 1955년 3호에서

파란 동화

카나리아의 신발

여름에 농민들이 한가한 날은 어떤 날인가요? 그것은 장마'비가 내리는 날이랍니다.

이처럼 장마'비가 내리는 어느 날, 한 농민이 도회지에 갔습니다. 그는 상점을 찾아 가서 물건들을 구경하였지요. 그러자 상점 주인이 다가 와서 무엇을 사려느냐고 물었습니다. 농민은

《내가 사려는건 당신네 가게에 없소!》 하고 대'구하였습니다.

《우리 가게엔 무슨 물건이든지 다 있다오! 거기 대해선 내기라도 걸 수 있습니다!》. 주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농민은 잠간 생각하고 나서

《무슨 내기를 걸잡니까?》하고 물었지요.

《20 마르까씩 내기합시다!》. (마르까—파란의 화페 단위—역주)

그들은 서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럼 무얼 사려는지 말해 보시요》하고 장사'군이 물었습니다.

농민은 이렇게 대답하였지요.

《난 우리 소한테 씌울 안경이 필요하오. 그 놈은 눈이 어두워서 길을 잘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장사'군은 말이 막혀 내기에 지고 말았습니다. 그 가게에는 소한테 씌우는 안경이 없었으니까요.

그는 농민더러 잠간 기다리라 하고, 이웃 거리에 가게를 펴놓고 있는 자기 친구한테로 달려 갔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농민과 내기해서 진 이야기를 하고, 그더러 소 안경을 만들어 두라고 일렀습니다.

《아니, 뭣 때문에 그걸 만들어?》 이웃 장사'군은 놀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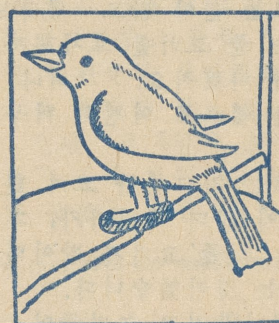
《그건 말이야, 내 이제 그 농사'군을 자네한테 보낼테니까 말이지》. 하고 찾아 온 장사'군이 대답했습니다. 《자넨 이 가게에 어떤 물건이라도 다 있다고 말하고 그 작자하고 내기를 걸란 말이야. 50 마르까씩 걸게나. 그래 그 작자가 소안경을 사자고 하면, 그걸 내놓으란 말일세. 그러면 우린 내기에 이길게거든. 그 담엔 내게 20마르까를 돌려 주구, 30마르까는 자네가 가지게나》.

이렇게 약속하고 장사'군은 자기 가게로 돌아 왔습니다. 그는 농민에게 20 마르까를 내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기에 이긴건, 우리 가게에 그런 상품을 갖다 놓지 않았기 때문이죠. 허지만 요 옆 거리에 있는 가게에 가 보슈! 아마 거기엔 소 안경이 있을거요》.

농민은 곧 장사'군이 가리켜 준 그 상점을 찾아 갔습니다. 그는 상점에 들어가 물건들을 둘러 보았지요.

그러자 주인이 다가 와서 물었습니다.

《뭘 사시려우?》.

농민이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사려는건 당신네 가게에도 없을 거웨다!》.

《없다니요?》 장사'군의 말이였습니다. 《어떤 물건이라도 우리 가게엔 다 있다는데 대해서 내길 겁시다!》.

이렇게 말하며 장사'군은 매대 아래 감춰 둔 소 안경을 넌지시 바라보았습니다.

《내기를 하자구요?》. 농민이 물었지요.

《그래 무슨 내기를 하잡니까?》.

《50 마르까씩 겁시다!》. 장사'군의 말이였습니다. 《내 미리 당부해 두지만, 우리 가게엔 없는게 없소!》.

《어디 봅시다! 50 마르까 걸테면 겁시다!》.

그들은 내기를 걸었지요. 장사'군은 농민에게 무엇이 필요한가고 물으며, 벌써

손은 소 안경을 꺼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농민은 잠간 생각하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집 카나리야 한테 신길 신발을 주시오! 그 놈의 새가 조롱 안에서 발이 시리지 않도록…》.

장사'군은 눈이 휘둥그래서 농민을 바라보며 상자들을 뒤져 보았으나, 그런 신발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는 수 없이 농민에게 50 마르까를 내주게 되였지요.

일은 바로 이렇게 되였습니다!

이 돈 때문에 드디여 장사'군들은 서로 싸움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민은 비가 걷힌 후 집으로 돌아 와서, 그 건방진 장사'군들을 오래 두고 두고 비웃었답니다.

잡지 《페오네르》 1955년 1호에서

불가리야 동화

물'고기의 이야기

어느 날 장사'군이 물'고기를 달구지에 가득 싣고 어떤 마을로 팔러 왔습니다. 장사'군은 한옆에 서서 자기 물건을 자랑했지요. 이를테면 그 고기가 어떻구 어떻다느니, 류달리 물이 좋다느니—한 마디로 말해서, 더 없이 좋은 생선이라고 말입니다.

그 바람에 농민들이 달구지 주위로 모여 들었습니다. 《익살꾸러기 뾰뜨르》도 군중을 비집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뾰뜨르는 눈이 밝고 냄새도 잘 맡는 사람이랍니다. 그는 물'고기를 보자마자 물이 나쁘다는 것을 대뜸 알아 차렸지요. 그러나 장사'군은 한시 바삐 팔아 치울 셈으로 여전히 터무니없는 자랑을 하였습니다.

익살꾸러기 뾰뜨르는 자그마한 고기 한 마리를 집어 들고 자기 입 앞에 갖다 대였다가, 그 다음 귀에다 갖다 대고, 마치 그 물'고기가 말이라도 하는듯, 신중히 귀를 기울이는 것이였습니다.

《자네 뭘 하고 있나?》하고 농민들이 뾰뜨르에게 물었습니다.

《별 다른건 아니야》 뾰뜨르가 대답하였지요.《바다의 새 소식들을 몇 가지 듣는 중일세》.

《아니 그 물'고기가 뭐라고 하나?》.

《〈최다 오랜 소식이야요〉하고 말하누만. 〈어째 오랜 소식이냐? 넌 어제 바다'속에서 나오지 않았느냐?〉하고 내가 물었지, 그랬더니 물'고기의 대답이〈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예요. 우린 나흘째 달구지에 끌려 다니는걸요〉. 하지 않겠나》.

농민들은 그 말 뜻을 깨닫고 장사'군을 마을 밖으로 쫓아 버렸습니다.

《무르질까》 1956년 2호에서

송 동규 역

미군놈 물러가라!

—영화에서 본 승냥이—

함남 함주군 제 7중학교 제 2학년 손 기 순

영화 《잊지 말자 파주를!》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치를 떨었는지 모릅니다.

복룡이처럼 불쌍한 애가 정말 있을가?

공화국 북반부에서 행복하게 자라는 우리들은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미군놈들은 정말 승냥이와도 갈습니다.

글쎄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두를 닦으며 한푼 두푼 모은 복룡이의 돈 마저 양담배를 사 준다고 빼앗아다가 놈들은 술을 쳐 먹지 않겠어요. 어디 그 뿐인가요, 사다 준다던 양담배를 달라고 공손히 말하는 복룡이를 덮어 놓고 때리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또 미군놈들은 도적을 잡는다는 구실로 복룡이네 마을을 습격하여 사람들을 잡아가며 이 곳을 자기들의 군사 기지로 만들 목적으로 집들에 불을 지르면서 옛날부터 살아 오는 고향에서 주민들을 강제로 쫓아 내는 것입니다.

미군놈은 불 속에서 기여 나오려는 복룡이의 어머니를 구두'발로 걸어 차서 방안에 쓸어 넣기까지 합니다.

때마침 어머니의 약을 구해 가지고 돌아온 복룡이에게 이 얼마나 원통한 일이였겠습니까. 이 광경을 보는 나와 우리 동무들은 복룡이를 동정하여 모두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미군놈들은 남조선에서 물러 가라!》 하고 웨쳤습니다.

우리는 또 생각했습니다. 오늘 미군놈들이 둥지를 틀고 있는 암흑의 땅 남조선에는 복룡이 뿐만 아니라 수많은 동무들이 사랑하는 부모를 잃고 거리와 마을에서 깡통을 차고 다니며 헤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파주에서 뿐만 아니라 남쪽땅 어느 곳을 가나 미군 양캐놈들의 만행은 그치는 날이 없다는 것을……

무엇 때문에 이처럼 미군놈들은 우리 나라 절반 땅인 남조선에 기여 들어 우리 부모 형제들을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며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미제놈들이 우리 나라를 자기들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난 2월 5일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 전원 회의에서 채택하여 발표한 공화국 정부 성명에서 지적한 것처럼

미제는 우리의 원쑤이다

우리 조국 남반부를 아무 리유없이 강점하고 있는 미제 침략군은 남반부 인민들과 소년들을 죽이지 않는 날이 없다. 미군의 이와 같은 행패는 날이 갈수록 늘어 가고 있다.

남반부 인민들에게 무슨 《죄》가 있으며 더욱이 철없는 어린이들에게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놈들은 어린이도 가리지 않고 죽이고 상처 입히고 있다.

다음의 실례들은 작년 하반년에 있은 어린이들에 대한 미군의 만행의 일부이다.

× ×

☆ 8월 26일 오후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거리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물밀듯하는 가운데를 미군이 트럭을 속력을 내여 몰아 조선 소년 주 을기 (12세)를 깔아 죽이였다.

☆ 같은 날 부산에서 하야리야 미군 부대 소속 미군 1등병 헨트 빌리재이는 길

우리들은 더는 갈라져서 살 수는 없습니다.

하루 속히 불행한 남반부 동무들도 우리와 같이 행복하게 배우며 자라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서 빨리 조국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나라 남녘 땅에서 미군이 물러 가고 우리 조선 사람들의 손으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시켜야 한다는 것은 우리 나라 인민들의 하나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나 미군놈들과 리 승만 도당들은 《평화 통일》 대신에 《북진 소동》을 일으키며 전쟁 나발만 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가로 막는 미국놈들은 어서 물러 가야 합니다.

나는 남반부에서 헐벗고 굶주리는 동무들을, 죄없이 놈들의 총에 쓰러지는 동무들을 구원하는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배우려 합니다.

그러면서 《ㅍ마 5개년 계획》 활동에서 불쌍한 남조선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일에 누구보다도 열성을 내겠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하는 것만이 《잊지 말자 파주를!》라는 영화에서 본 복룡이와 같은 남조선의 불행한 동무들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하루 속히 이룰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금 나는 《우리 조국 남쪽 땅에서 미군놈은 당장 물러 가라!》고 웨칩니다.

(1958년 2월)

독 자 문 예

양코배기 눈사람

구 기 준

얘들아 모여라
양코배기 눈사람
배뚱뚱이 눈사람
미제놈을 굴려 내자

눈덩이로 때리자
전쟁만 꿈꾸는
미제놈의 대갈통
돌팔매로 때리자
남쪽 형제 피빨아
불룩한 배통을

고무총을 쏘아라
승냥이의 눈통을
주먹으로 부셔라
양코배기 코'등을

얘들아 모여라
양코배기 눈사람
배뚱뚱이 눈사람
미제놈을 굴려내고
평화 통일 기'발을
훨 훨 날리자!

가는 구두닦이 소년 한 념(14세)에게 무턱 대고 카빙총을 쏘아 거의 죽게 상처 입혔다.

☆ 10월 3일 오전 8시쯤에 경북 김천역 길'가에서 미군 군용 렬차의 호송 헌병인 미 728부대 비 중대의 미군 상사 레이몬드 엘 베일리는 그 근처를 거쳐 학교 가고 있던 금릉 중학교 학생 송 준원(15세) 등 5명에게 총질하여 송 준원의 목숨을 끊었다.

☆ 10월 16일 의정부에서 북쪽으로 4키로 떨어진 곳을 달리고 있던 미군 트럭은 길'가에서 천진 란만하게 놀고 있는 네살 난 조선 어린이 정 순호를 치여서 죽이였다.

☆ 10월 24일 미국 대사관에서 일하는 미군 해병 파다르 일칵은 서울 남쪽에서 철없이 뛰놀고 있던 조선 소년 정 재경(9세)을 무턱 대고 쏘아 죽였다.

☆ 11월 3일 밤 경기도 파주군의 한 부락에서 미제 고용병의 트럭이 마구 달리다가 집을 들어 받아 조선 어린이 안 성호(4세)를 깔아 죽이고 황 혹세 및 황 영해 등 두사람은 거의 죽게 만들었다.

달력을 펼쳐 들고

3월 1일—해마다 이 날은 1919년에 일제를 반대하여 용감히 투쟁한 3. 1 운동을 기념한다. 래년 3월 1일은 3. 1 운동 40주년이 된다. 우리들은 조국의 독립을 찾기 위하여 용감히 싸운 선조들의 투쟁에서 애국심을 배운다.

3월 5일, 12년 전 이 날은 북반부 농민들이 조국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땅의 주인이 된 날이다. 일제와 친일파, 민족 반역자,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여 땅 없는 농민, 땅 적은 농민에게 돈 안 받고 나누어 준 것이다. 이리하여 농민들은 지주들의 가혹한 착취로부터 영원히 벗어나서 나라의 주인으로 떳떳이 나섰으며 오늘은 농업 협동 조합을 조직하여 보다 행복한 사회주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3월 8일은 국제 부녀절이다. 전 세계 어머니들과 누나들은 민주와 평화를 위하여 그리고 녀성들의 권리와 어린이들의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날로 기념하고 있다.

3월 14일은 위대한 인류의 스승인 맑스 선생이 서거한 날(1883년)이다. 선생이 창시한 공산주의 사상은 전세계 인민들의 사상으로 승리하고 있다.

3월 21~28일은 세계 청년 주간이다. 공고한 평화와 민족적 독립과 보다 훌륭한 미래를 위한 투쟁에서 세계 청년들의 단결된 힘을 시위하는 날이다.

× × ×

작년 12월 26일부터 금년 1월 1일까지에 걸쳐 카이로에서 열렸던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회의 결정에 의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리사회는 3월 2일을 핵무기 금지의 날로, 3월 30일을 알제리아의 날로 정하였다. 핵무기 금지의 날에는 미국이 감행하려는 핵무기 시험을 금지하기 위하여 인민들의 운동을 전개하게 될 것이다.

알제리아의 날에는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이 독립을 위하여 일떠선 알제리아 인민들을 지지하는 시위, 군중 대회 및 의연금 수집을 진행하게 된다.

사진 우로부터
① 공산당 선언
② 유화 《3. 1 봉기》
③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반대하여 일떠선 씨리야 청년들
④ 독립을 찾기 위하여 불란서 제국주의자들과 투쟁하는 알제리아 인민 해방군.

편집 위원 김 주현(주필) 리 원우 리 동무 송 정우 신 진균 최 윤호

1958년 2월 15일 인쇄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1958년 2월 22일 발행 《소년단》 1958년 제 3 호 (총101호)
발행소 민 주 청 년 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40802 값 25원 80,000부 발행

ПЭК 8
УЛ.ЧАЙКОВСКОГО 19.21
АМЕРИКАНСКОМУ
ПОСОЛЬСТВУ

8029 СОЛЕНДАН